

# 김 기영 시선 모음 3

가을이 보내온  
편지-우거에서

## 머리말-김기영 시모음 3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사무치는 가을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나눔의 날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고인 고마운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잘 것 없는 생각의 편린들이지만 나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쓸쓸함은 인생의 진리인 듯 합니다. 들판의 곡식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무의 열매가 다 내 것이 아니지만 추수의 계절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모든 수고로운 사람들과 만물에 감사하는 계절임에 분명합니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김기영 시모음 제 1권, 제 2권에 이어 『가을이 보내온 편지-우거에서』 라는 제목으로 제 3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풍성한 가을을 맞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영터리 사마천 같은 우리의 시간 기록과 함께 삭막한 세상 살이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머리말-김기영 시모음 2

여름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땀 흘리는 계절이다. 김기영 시모음 제 1권에 이어 여름의 풍성함-내맘대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 2권을 펴내게 되었다. 모쪼록 더위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엉터리 사마천 같은 우리의 시간 기록과 함께 삭막한 세상의 반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머리말-김기영 시모음 1

춘래 불사춘이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선현들의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세상이다. 혼탁한 정치와 메말라가는 인간들로 우리 사회는 양들의 침묵 같이 감성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사회 생활은 사하라 사막 같이 황량하고 무미 건조하게 되어 가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폐북이라는 작은 표현의 장을 얻어 남기고 싶은 느낌들을 시로 굵적거리기 수년이 지났다. 폐북의 빈 페이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시나마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본 시선 1집은 2020년 경 폐북 시들을 모아 본 것이다. 시라고 하지만 무엇이 시인지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는 가운데 그저 진솔한 느낌을 글로 전해 보려는 작은 마음으로 아직도 폐북에 시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제 2집 제 3집처럼 씨리즈로 출간해 볼 요량이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직접적인 서정적 표현이 아닌 비유와 풍자적 표현이 많아 시를 통하여 감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독자의 기대에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만 풍자와 해학으로 이해하면서 감상하면 망외의 즐거움이 아닐까 한다. 본 시선 모음은 독자의 지루함을 덜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사진을 삽입하였다. 시의 감상과 함께 자연과 가족이 가져다 주는 오붓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여름이 짙어져 가고 있다. 예년보다 더한 폭염이 온다는 예보 속에 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 <제목 차례>

1. •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 • .....	8
2. • 우병우와 우영우 • .....	10
3. • 압력 밥솥의 비애 • .....	12
4. •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건 • .....	15
5. • 노년의 비애 • .....	17
6. • 올림픽과 영동 설렁탕 • .....	19
7. • 뼈꾸기도 밤에 우는가 • .....	22
8. • 주 예수와 국제사회 • .....	24
9. • 바이오 정치와 진짜 정치 • .....	28
10. • 솔로몬과 다니엘 • .....	30
11. • 증력, 질소와 산소 • .....	33
12. • 교수와 학생들 • .....	36
13. • 차 한잔의 아침 • .....	39
14. • 시장과 자본주의 • .....	42
15. • 알타리 무우와 공군 1호기 • .....	45
16. • 한국 자본주의의 하루 • .....	48
17. • 표현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 • .....	52
18. • 판사와 출판사 • .....	55
19. • 해체주의 시대의 친구들 • .....	58
20. • 인생과 연극 • .....	61
21. • 자코뱅과 지롱드 • .....	63
22. • 영터리 기록문화관 • .....	66
23. • 삼총사 달타냥과 박광은 • .....	69
24. • 졸업조항과 하느님 코드 • .....	71
25. • 샘쌍둥이와 여인 천하 • .....	75

26. • 컴퓨터와 디아스포라 •	78
27. • 벚꽃과 진달래 •	81
28. • 나는 왕이로소이다 •	84
29. • 신화, 배비장과 애랑 •	86
30. • 기봉스와 비엔나의 아침 •	90
31. • 월 스트리트와 담터 •	93
32. • 동기들의 추억 •	96
33. • 책과 인터넷 혁명 •	99
34. • 국제법과 헌법 •	102
35. • 삼부회와 교회의 대분열 •	105
36. • 가상현실의 우두머리 •	107
37. • 지식인들과 부르조아지 •	110
38. • 월요일과 월급 봉투 •	112
39. • 피타고라스와 히포크라테스 •	115
40. • 카사노바와 쉬락 총리 •	117
41. • 보팔과 무서운 여성들 •	120
42. • 아피스와 아데나워 •	122
43. • 서양 멧쟁이와 한국 정치 •	124
44. • 탈무드와 하회탈 •	127
45. • 일요일의 휴게실 •	130
46. • 주술을 향하는 월요일 아침 •	132
47.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	135
48. • 덴마크와 그린랜드 •	138
49. • 알벗과 버나드 쇼 •	141
50. • 원저성과 베르사이유 궁 •	143
51. • 정부와 유엔 반부패협약 •	148
52. • 좋은 일 좀 하시게 •	150

53. • 이름 따라 삼천리 • .....	153
54. • 노르만과 체르노빌 • .....	156
55. • 빨간 피와 하얀 피 • .....	159
56. • 남과 여 OST • .....	162
57. • 워크 이데올로지(Woke ideology) • .....	165
58. • 장애인 만세 • .....	168
59. • 공과 사의 영혼들 • .....	171
60. • 필 하모닉과 우리의 정치 • .....	173
61. • 세상에 꿈짜는 없다 • .....	175
62. • 시험 선수들과 태산 같은 친구들 • .....	178
63. • 피노체트와 피노키오 • .....	180
64. • 686세대와 서울 올림픽 • .....	182
65. • 교육은 백년지 대계 • .....	186
66. • 국가주권설과 국가법인설 • .....	189
67. • 좌우정치와 회색분자들 • .....	192
68. • 스탈린과 모두 다 사랑하리 • .....	194
69. • 한강수는 오늘도 말 없이 흐른다 • .....	197
70. •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 .....	199
71. • 법률가의 하루 • .....	201
72. • 바이든과 날리면 • .....	203
73. • 세네갈과 생각하는 갈대 • .....	206
74. • 전쟁이 남긴 상처들 • .....	209
75. • 세컨드를 아시나요? • .....	211
76. • 법치주의는 괜찮나요? • .....	213
77. • 에게해의 사람들 • .....	216

1. •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 •

부제: 마잉주와 잉글랜드

세상은 광대한 물과 불  
무채색의 까칠한 흑백 영화  
전쟁과 평화의 법은  
국제법을 일깨우고  
칸트와 켈젠은 우리의 이상  
국내사회와 국제사회는  
철학으로 일원화되고  
법의 이상인 법과 인권의  
숭고함을 향하네  
노암 선생님의 눈에는  
여전히 갯들 같은 국가들  
법과 사람 사이에는  
괴물 같은 국가들  
국제사회의 개인은  
개 돼지 같은 짐승이라는  
어느 국제법 학자  
뒤기는 법사회학  
정치와 주권의  
국제법 체계는 해체되고  
국제선 비행기 기품의  
사장님은 뒤기로  
호소할 데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은 국제 법정에서  
서지 못하네  
국내 사회는 우리의 복락  
관세선을 찾아 보고  
국가 영역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단골 메뉴  
대한민국의 하루는  
김 일병들로 행복하고

경찰과 함께 뿌듯하네  
관리들은 아이처럼  
치사한지 조상들은  
벼슬아치라 하네  
어쩐거나 어퍼컷  
모션은 시원하고  
큰 일 발표장은 아치를  
그리는 홈런처럼  
아름답기도 하네  
학자들은 곤충처럼  
곤한 배를 채우고  
우리들은 관리 따라 학자 따라  
아아 우리 대한민국  
체계가 무력한 국제사회  
성나면 전쟁으로 금수조치로  
국내사회 천한 성들  
천방지축 마골피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선생님  
자 이씨가 아니고 마씨다  
마잉주는 대만을 가르치고  
국내사회만 잉꼬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결혼할 수 있다  
반지의 제왕 같은  
잉꼬 부부로  
청포도 사랑 같은  
잉글랜드의 주인으로  
세상의 시작은  
영혼의 결합에서  
언제나 칸트, 켈젠,  
뒤기가 그리던 세상이

2. • 우병우와 우영우 •

부제: 근육 예찬

이종태 선배님의  
육체미 사진은  
우리의 모범  
의사선생님은 근육은  
우리의 생명이라네  
육체미 선수가  
되어야 하나  
운동 선수가  
데스크 오피서 보다  
더 오래 사는게  
아니라는데  
잠시 돌아 보니  
심근 경색 심정지  
아하 진리에 실소하고  
우리는 육체미 선수에서  
병상의 노인으로  
육체미 선수 근육 같던  
깨알 같은 이력서는  
호흡곤란 산소 마스크로  
생명은 근육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움직이네  
배는 볼록 팔은 가는 체형  
맨손 체조라도  
근육 관리 하세요  
언젠가 불쑥 이근은  
하느님의 메시지  
우리는 이근 같은  
근육을 갖고 싶고  
노년의 우리는

근력은 어떠세요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움직이네  
우리는 인생의 반려  
친구는 시작에서 끝까지  
우병우는 버리  
벼처럼 숙이고  
국민을 받드는 서번트  
친구로 시작하여 친구로  
반복하는 사회 속 익은 벼들은  
벼에서 병으로  
직업인의 근육으로  
일생의 모범이 되고  
우영우는 장애우 변호사  
친구에서 시작하여 친구로  
반복하는 사회 속 여자 같은  
친절함은 여에서 영으로  
친절한 근육으로  
일생의 여유가 되네

3. • 압력 밥솥의 비애 •

부제: 자네티와 산체스

우리는 이부자리  
요를 반복하고  
요는 용이 되네  
가족의 자부심 속에  
뿌듯한 하루  
우리는 거리를 유하고  
유가 반복되어 용이 되네  
용기한 정치가는  
훌륭한 우리의 이웃  
누구는 용이고  
누구는 용이라 해도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  
자네티와 산체스의  
당구를 즐기고  
링크드인 보는  
어중이 떠중이  
교수님 대학원 졸업했어요  
이제 자네티라 불러 주세요  
자네티가 나나요  
교수님 국회의원 되었어요  
산 같이 우람하지 않나요  
산체스 같지 않나요  
알았네 축하하네  
그만 들어 가게  
아무리 그래도  
도통 무소용  
탐이 되어 나타나  
어둠 속에서  
군시령거린다네  
피곤한 우리는 단두대로 싹둑

골프의 스윙으로 시원하게  
멀리 보내 보지만  
어둠 속의 하느님은  
내가 싫다니 짱구를 굴리고  
그러면 너는 소원이구나  
하느님과 우리는 같이  
소원을 찾아 보고  
소원이 없는 다 산 노인들  
그저 나쁜 일 없으면 행복  
하루의 일상은  
소확행만 덩그러니  
더 그러면 불쌍하다  
레이다 가가처럼 가를 향해라  
김용처럼 용이 되거라  
칼 용처럼 공부하거라  
아무리 타일러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지  
불쌍하게 하늘나라에서  
10그램의 커다란  
알몸이 되고  
땅 위에 떨어진  
뉴턴의 사과가 되어  
소설 속 어둠의  
자식들이 되네  
앗 수십년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  
하늘로 인한 고달픈 천고  
그 정체는 바로  
가지지 못한  
이웃들이었구나  
압력밥솥 하나 없는  
우리의 가난  
자 힘내서 누르자  
맛있는 밥을 짓자  
노 변호사는

지산동 사무실로  
노 교수는  
법대 한켠 연구실로

4. • 헤라클래스와 아킬레스건 •

부제: 드라마 대물과 하늘이시여

딥 러닝은 우리의 힘  
장발장인가 장발의  
괴수처럼 힘이 세고  
삼손의 머리털처럼  
우악스럽네  
헤라클레스처럼  
클래스의 장사가 되고  
우리는 배우는 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  
헤라클레스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는 죽이는 아이들  
헤라클래스의 힘을 죽이고  
천재 같은 아이들은  
대학원 세미나로 논문으로  
걸레 같은 연구자의 인생으로  
아킬레스건은 건자 돌림  
건희 여사처럼 건재하고  
우리의 유통은 헤라클래스  
노년의 부부는 미술품 앞에서  
묘하게 서서 조화를 이루네  
전문가 시대는  
우리의 과학 기술  
우리의 경제  
한국은 누가  
형사법 전문가인가  
전문가 다툼은 정권도  
바꾸어 버리네  
월 스트리트는  
마치 전문가들의 벽 같고

뉴욕은 새로운 욕이예요  
새로운 전문 분야예요  
학교에는 새로운 과  
미국과 세계는 나날이 달라지고  
자 미국이다  
현미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네  
전문가 시대의  
썰렁한 세상은  
예술로 사람으로  
우리의 예술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재림하시네  
케이블 방송은 옛 드라마  
하늘이시여 다음은  
드라마 대물이구나  
하늘은 우리의 예술  
대물은 땅위의  
훌륭한 전문가들  
월 스트리트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경제  
우리는 직업인 우리는 경제인  
우리는 플라톤  
우리는 아리스토 텔레스  
오늘도 우리는 소명을 찾아  
지옥철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  
누추한 집을 쉼터 삼네

5. • 노년의 비애 •

부제: 사의 찬미

하늘에 떠 다니는  
10그램의 커다란 알몸들  
거리 선전판 커다란  
풍선 같이 나부끼네  
우리는 아멘 기도하네  
불귀의 객이 되버렸나  
언제나 뉴턴 선생님의  
사과가 되시려나  
언제나 수박 배 광고  
80킬로 사람이 되시려나  
이게 너 죽기 하루전  
일어나는 일이다  
소천해 소천해 어둠의  
자식들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나 살고 너 죽자네  
사고구나  
30년 뒤 죽기전  
변하지 않는게 무얼까  
아하 링크드인  
인재들 징표구나  
딴건 다 변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대학로의 허수아비  
삼국지 속 죽은 공명  
노래 속 참새와 허수아비  
나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큰 일 났네 이거  
돌이킬수도 없고  
10그램 하나님의  
소천의 노래는  
피할 길이 없네  
별 수가 없구나  
사는 날까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유언이나 남기면서  
살 수 밖에

6. • 올림픽과 영동 설령탕 •

부제: 한국, 대만, 중국의 머리털

우리는 올린다  
오르세 미술관을 사랑하고  
픽하고 잠깐이지만 올려 보자  
올림픽과 쿠베르탱  
남작에 감사하네  
우리는 결혼한다  
여가 계속되어 영이 되고  
세기의 결혼식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네  
드라마 여로 속  
장옥제는 영구 없다  
바보 연기는 한국의 해학  
설령탕은 우리의 점심  
영동 설령탕은  
운전기사 최고의 맛집  
마영구와 채영문은 작은 중국  
구 자의 충만함과 영자의 결합은  
잉주가 되고 잉글랜드의 주인으로  
채 자는 집같이 작은 대만  
영문은 공부하는 우리들  
중국은 우리 집을 회복하자  
침을 흘리네  
마원은 현대화된 중국  
말이 이긴다  
천방지축 마골피가 아니라네  
중국의 대인 스케일  
천고마비의 말은 살찌  
구름처럼 되네  
자자자 우리의 직업인들  
자의 반복은 장 우리의 예의는 님

장님이 되고  
버버버 우리의 휴게실들  
버자의 반복은 병 우리의 말은 어리들  
병어리가 되네  
오픈 유어 마우스  
이에스엘 선생님은 말하는 버릇  
지옥철의 직업인 에어 파드는 CNN  
이유가 뭘가요?  
이유는 EU다 너스레를 떠네.  
이유(reason)는 우리의 서양 지성  
영국의 이유 탈퇴는  
보리스 존슨  
시나트라 의 뒷 정리는  
서양신사 예의의 친구  
보리스 옐친  
한국인은 친절 한 친구들  
보리수 그늘 아래  
설법하는 석가모니  
우리는 친구들 보우 선사들  
유럽은 유레카  
새로운 진리의 환희  
통합되어 이유가 되네  
이유는 합리성 와이(Why)  
프로테스탄트들은 항의하고  
우리는 지성을 향하네  
알레앙스 프란세스  
세상의 주인이었던  
찬란함을 그리며  
이유를 찾고 지성을 심네  
우리는 장님 같이  
병어리 같이  
힘센 씨름판의 한국 장사  
보보보 보를 심는다  
폐친 최보식 같이

친절함과 지성을 심고  
    뽕식이 이용식은  
    우리의 복지  
    자자자 버버버  
직업인의 하루는 반복되고  
천하람처럼 천하장사처럼  
되어 버린 장님과 병어리,  
    자라 같은 정력은  
한국 경제의 번영으로

7. • 뼈꾸기도 밤에 우는가 •

부제: 김영삼과 김영일

광주의 노 교수는 직업병  
직업은 우리의 소명  
우리는 세계로 열려 있네  
미슐랭은 요식업  
학교 앞에 걸려 있는  
공학 인증 경영대 인증  
플래카드는 우리의 자부심  
아침 풍암동 호수 앞에서  
법을 생각하네  
전통의 로마 제국은 철권 정치  
현명한 황제들은 법과 정의를  
신성로마제국은 오토 1세  
큰 세상 속 토론하는  
대학의 법 연구인들  
갈대 같은 학제간 연구는  
종교전쟁으로 분열하고  
학교에는 우후죽순  
수 많은 과들이  
잠실은 네이티브  
미국 변호사는  
국순당의 반도체  
촘촘하게 잠겨있는  
컴퓨터 같고  
하이브리드는 혼혈인  
세계 속 학자들의 창조성  
혼혈과 잡종 교배는  
풍성한 아이디어  
법학자들은 이란이 되고  
누에고치처럼 이를 누네  
이란은 핵무장

핵은 국가의 자주 독립  
미국도 어쩔 수 없고  
이는 우리의 합리성  
김일성과 하나회  
일자 돌림은 우리의 슬픈 정치  
광주의 아픈 역사  
김영삼과 김영일은  
영국의 산삼인지  
영국의 일인지  
오토 1세가 되고  
안토니우스가 되어  
법의 정의를  
비엠티남은 우리의 집을 지키자  
집은 우리의 중력  
미국도 어쩔 수 없고  
집이면 공부해라  
586 세대의 기억들은  
조화유와 문선명을 떠올리네  
조화를 이루자  
선명하게 글을 써 보자  
아침의 시인은 서툰 솜씨에  
80년대 영화와 함께 실소하네  
뼈꾸기도 밤에 우는가  
병상 같던 침실은  
시원한 풍암호의  
산들 바람과 함께  
옛 추억으로

8. • 주 예수와 국제사회 •

부제: 나치와 처칠

환갑을 앞둔 노 시인  
주 예수 같은 기분의 아침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예의 있는 짐승  
본능도 가질 수 없는 희생양  
영화 속 배우는 지저스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네  
예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  
마굿간은 달리는  
우리들의 험한 침터  
우리는 경쟁과 시장  
그러나 출산율은 떨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여 제자  
마굿간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막을 달라네  
베지밀은 안동 배가 안다네  
오늘도 밀어 보자  
박지향은 지식인의 향기  
윤미향은 미국의 향기  
우리는 안동 양반 안동현  
아침의 신문은 작명한  
아버지와 실소하는 아침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쓰세요 쓰세요  
나훈아의 공 노래처럼  
허무를 알아 버린  
시인과 아버지들  
나치는 발전해야 할

숙명의 후발 제국주의국  
유치산업보호론과  
자유시장론은 갈등으로  
게르만은 우수하다  
내가 나다가 되어 전쟁으로  
나는 주리라 애나 드세요  
줄리아드처럼 줄 것도 없고  
치사할 수 밖에 없네  
세계의 공장 런던은 공포로  
처칠은 최 강대국의  
처절한 현실  
해양 강국은 거리에서  
봉쇄되어 아이구  
간통왕도 못해 먹겠네  
행주산성의 치마부대처럼  
부창 부수 처한테 칠해요  
청포도 사랑 오בות한  
부부의 정서를 대변하네  
제국주의 보다는 주권국가  
유엔총회에는  
수 많은 주권국가  
반등은 제국주의 유산에  
반대하는 기둥  
수치 여사는 주 예수도 치사하다  
이건 수치야 수치  
말처럼 헹헹거리는 군부  
로hing야가 되어 법도 걸어 차네  
첫번째 세계 대전은 누가 크냐  
두번째 세계대전은 누가 똑똑하냐  
전쟁의 참화는  
인류의 슬픈 역사  
인류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정서  
스키처럼 미끄러지고

큰 세상 나무의 아이처럼  
나는 중립이다  
중립도 주권국가나 가능하고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생제르만 조약은  
재판소를 향하고  
우리는 유엔으로  
우드로 윌슨으로  
나무같은 국제법은  
민족자결주의  
나는 하리라  
의지의 아들  
남아공 백인정권은  
민족자결이 아니라네  
나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유엔총회는 모두 평등하다  
모두 크다 모두 똑똑하다  
안보리는 비웃고  
칸트의 자유국가 영구평화의 이상  
사람, 국가, 세계를 하나로  
그러나 칸트의 이상은 요원하고  
징기스칸 위스칸의 이상은  
현실을 틀지 못하네  
여전히 국제사회는 치열한 현실  
지리는 우리의 선생  
이념이 뭔가요 판지를 피우며  
프랑스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마크롱의 대만거리 두기는  
친구들의 비난으로



9. • 바이오 정치와 진짜 정치 •

부제: 푸코의 단명

우리는 정치적 동물  
아리스토 텔레스의  
혜안은 삶을 꿰 뚫고  
정치는 시민의 삶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철이 들어라  
가짜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생각하네  
푸코와 학자들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바이오  
푸코의 비판철학은  
바이오 팔러틱스라 불리우고  
역시 정치는 진짜 정치  
우리는 진지왕과 장수왕  
심금을 울리는 진리의  
말들도 학문에 불과하고  
생명은 오래 가지 못하네  
학자는 바이오 정치  
언젠가 우리 조국과  
우리 시민들  
학자라고 강변하는 조국  
시민에 떠밀려  
정치로 내몰리고  
감옥 가게 될것  
같은 처지임에도  
언론은 정치로 정치로  
바이오 정치는  
급기야 체육 정치로 까지  
강용석 지가 키가 크고

지가 잘 생겼다  
결국은 뱀들처럼 징그럽게  
법원에서 머리채를 잡고  
요즘 우리와 조국의  
바이오는 어떻게 되나?  
시민들은 우리의 바이오와  
우리의 메디컬을 돌아 보네  
아무리 재미 있어도 그렇지  
출근길은 민해경 노래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진짜는 뭐가 달라도 달라  
정치는 역시 진짜 정치야  
바이오 팔러틱스 오 노!  
리얼 팔러틱스 오 예스!

10. • 솔로몬과 다니엘 •

부제: 최고의 문과 선생님

진지한 학도들  
학도들의 눈망울은 빛나고  
하나님은 웃으면서 한 말씀  
    애야 최고의 문과  
    선생님은 유머야 유머  
    정치기관은 다니엘  
하나님은 다수니? 물어 오네  
    우리는 엘처럼 예쁘게  
법을 만들고 국가를 생각하자  
    사법기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  
    고독한 솔로몬 심판관들  
    아이를 돌로  
    진짜 엄마가 밝혀지고  
다니엘들은 우리의 대표  
    상원은 귀족을  
    하원은 평민을  
솔로몬들은 우리의 지혜  
    모든걸 대표하지만  
    아무도 대표하지 않네  
    남쪽은 농업경제  
    북쪽은 산업 경제  
    말스의 역사적 유물사관이  
    미국헌법이고  
    남북 전쟁이다 외쳐도  
우리는 링컨을 추앙하고  
수정헌법 14조를 사랑하네  
    법은 적법절차  
    법은 만인의 평등  
우리의 자유는 적법절차

법 앞의 평등은  
근대법의 이상  
우리의 거리는  
자유와 평등의 잣대  
우리는 졸업식  
우리는 시험합격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은 사고가 되기도 하고  
이게 경제재요 사회재요  
이게 돈이요 기분 문제요  
솔로몬 앞에는 수많은  
디그리 라이선스 사고들  
맘스처럼 되어  
손해액을 따져 보네  
다치면 얼마 배상받나요  
죽으면 얼마 배상하나요  
이성은 서양지성의 시작  
일 못한 날이나 기대여명에  
합리적 소득 기준을 곱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자  
박사 평균 임금  
의사 평균 임금  
도시 건설노동자 평균 임금  
일찍 죽었으면  
의사 평균 임금일텐데  
이제는 도시 건설노동자 평균임금?  
정유라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법 앞의 평등이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건설 노동자를 하나요  
YH 여공 기준이  
낮지 않을까요  
아기를 둘로 나누자의 지혜는

아기 둘을 비교하자로  
재판대 위의 법관은 아이구 복잡  
순수한 진짜의 기쁨  
지진희로는 안되겠구나  
나는 가짜다 큰 가발을 쓰네  
달릴건 달렸다  
언젠가 옆방 교수의  
유머에 실소하네  
유머? 당신 뭐야인가?  
우리는 사례집을 펴드네

11. • 중력, 질소와 산소 •

부제: 프레스와 압력단체

우리는 프레스  
우리는 기자들  
우리는 학교의 출판사  
우리는 압력단체 처럼  
정권을 비판하고  
우리는 정의의 여신  
우리는 법률가  
우리는 판관  
우리는 압력밥솥이 되고  
비리 정치가들은 떠네  
우리의 생명은 중력  
중력의 삶은 놀려야 하고  
압력을 받아야 하네  
중력은 우리의 현실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뉴턴의 사과처럼  
놀란 표정으로  
현실의 삶을 향하네  
악몽의 밤은 삶과 죽음의  
전장터에서 환생한  
어느 2차 세계대전 귀환병  
옆의 여성과 막무가내 키스를  
아침의 우리는 잘 잤다  
기지개를 펴네  
현실의 삶은  
프레스와 압력 밥솥  
하늘에서 떨어진  
소비자 사과는  
시원한 산소를 그리며

주말의 골프장을 찾고  
해외로 동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네  
하늘에서 떨어진  
생산자 사과는  
다시 돌려 보자  
칙칙한 질소에 중독되어  
신문을 펴들고  
국내서다 해외서다  
책을 들여다 보네  
소비자의 하루는 산소로  
생산자의 하루는 질소로  
우리는 잡종 중력의 하루는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고  
우리는 질소 없인 못 산다네  
정치가도 학자도  
변호사도 기자도  
놀이자 압력을 받자  
어쩌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  
질소와 중력이라는  
불변의 생존 현실  
우리는 놀리고 압력 받고  
급기야 축 늘어진 하체  
엿이나 먹어라인지  
지성은 쌓이고  
로펌 변호사 사이트에는  
핵심적 법이론들이 씨리즈로  
학자들의 이력서에는  
수 많은 책과 글들  
서재 한켠에는  
사도 기자 김홍도  
일생의 기사들을 담은 책  
우리의 하루는

9시 스포츠 뉴스  
손흥민은 영어도 잘해  
해드 어 크릐  
승리하였다네  
수확이 있다네  
우리의 하루는  
프레스와 압력 밥솥  
총든 은행 강도처럼  
취재하고 메모하네  
지식인들의 아침  
컴퓨터에는  
문선명 이름처럼  
선명하게 다가오는  
어제의 크릐  
은행 강도처럼  
작성된 페이지들  
땅에 떨어진 사과가  
압력을 못 받았나  
시인은 영터리 의학자  
영터리 과학자로  
누구는 3회 불출석  
영터리 변호사로  
의회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12. • 교수와 학생들 •

부제: 다보탑과 석가탑

비 내리는 아침  
비는 우리의 시간  
송골매의 빗물  
멜로디와 함께  
우리는 슬픔을  
알고 삶을 느끼네  
비는 곡식을 영글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비옥하게 하네  
슬픈 비는 퍼플 레인  
어린 왕자 기분의 프린스  
기쁜 비는 김태희  
성숙하고 멋진 연예인 부부  
미국 사람들은 슬프다  
한국 사람들은 기쁘다  
어서 와 대학원으로  
판사는 종긋 토폴 테이프를  
마치 미래의 세상은  
토폴러인 것처럼  
순수 그 자체가 되어  
이재성 노래 촛불잔치 속  
소박한 촛불 하나  
쇼팽의 스프링 왈츠 동영상  
청초한 꽃 한 송이  
어린 시절 향하던  
에스제이디의 정서  
기타 하나 동전 한닢뿐  
학위를 해 보겠다고  
에스제이디에 놀린  
젊은 시절 에 자의 시간은

에밀레종으로  
 에베레스트로  
 에스트라다로  
 아이를 넣어 종을 만들었다네  
 에밀레 에밀레 술피 울고  
 종 속 아이들은 밀자 밀자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고봉  
 에펠탑은 세계 최고 탑  
 애지만 세계 최고가 되어 보자  
 에스트라다는 후기 식민지주의  
 창설적 효과설은  
 제국주의 시절 정치 과학  
 이제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자  
 주권국가 시대 정치과학으로 틀자  
 국가 승인 하지 말자  
 에스제이디는  
 하늘이 보내 주신 자살용 칼  
 하늘이 보내 주신 멋진 신발  
 이제는 교육자가 되어  
 교복 등교는 중산층  
 없는 집 아이는 운동복  
 처절한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에  
 눈시울을 적시네  
 에스제이디는  
 이화학당으로  
 봉숭아 학당으로  
 이화학당은  
 닭 한마리 칼국수  
 봉숭아 학당은  
 봉주루 송한 아이들  
 불은 신성하고  
 불국정토를 꿈꾸며  
 우리는 불국사로

슬픈 프린스는 다보탑으로  
제이씨 페니로  
이쁜 대학원은 석가탑으로  
부항으로  
아침의 학교는 교수와 학부생  
알고 싶어요  
제이 자 시인이 되고  
제이 씨인가요?  
페니는 팬다는 건가요?  
아니면 페니인가요?  
진짜 기타 하나 동전 한잎인가요?  
노년의 교수는  
어린 시절 에밀레 종에서  
제이씨 페니와 함께  
이삭 줍는 노인  
밀레의 만종으로

13. • 차 한잔의 아침 •

부제: 아편과 자유시장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오  
조용필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학자들은 여행가  
세상의 재미 있는  
것들을 담아 오고  
우리는 학자 따라 여행을  
페이지의 즐거움과  
함께 시간을 때우네  
책과 함께 한 저녁 시간은  
상쾌한 아침의 차로  
직업은 우리의 트랙  
안정환의 정서는  
향기 짙은 녹차  
돈과 출세는 큰 세상으로  
세상은 진짜 커요  
내렸어요 내렸어  
맛 깊은 내린 커피  
출세 못한 박사  
돈 못버는 변호사  
순수한 바보들은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양평 두물머리  
맹송 맹송 꽃잎차  
아 피곤한 세상  
한번 붙어 보자는 쌍화차  
쌍팔년도 올림픽  
기분이 되어  
은은한 향의 정애리

광고의 쌍화차로  
질긴 우리 인생  
음양의 화합을 음미하네  
제국주의는 돈과 출세  
커피 하우스에서  
큰 세상 지도를 보며  
침을 흘리네  
풍신수길의 동양지도  
보면서 대륙을 꿈꾸듯이  
직장인은 녹두 장군  
보성의 녹차 받은  
한국의 풍요로움  
아이유 서울 우리는  
서울을 사랑하고  
아이유는 유랑하는  
아이들 처럼  
책을 펴드네  
책과 논문 속 푸트 노트는  
밟아 본 여행의 이정표  
아이들의 똥은  
아편처럼 뗄 수 없는  
책이 되고 약에 쓰이네  
아편과 티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의 갈등  
우리는 거래를  
해야 산다 문을 열어라  
자유 시장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기야 아편과 티는 전쟁으로  
영화 배경의 55일은 책의 경사  
신식 학문으로 동양도 근대화  
이제 세계는 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체제  
커피 하우스는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아침의 우리는 세계화 시민  
서양은 이제 살림 좀 폼났나요  
동양은 이제 대인 티가 나나요  
서양을 즐기자 커피로 꽃잎차로  
동양을 즐기자 홍차로 녹차로

14. • 시장과 자본주의 •

부제: 남진과 나훈아

자본주의는 시장과 연애  
미녀와 야수는  
연애대장인 우리  
시장의 남자 시장의 여자  
아름다움을 팔고 정력을 파네  
자본주의는 시장과 종교  
주 예수는 자신을 희생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위선과 타락은 이제 그만  
청교도 정신으로 새롭게  
주 예수를 영접하세  
칼뱅의 검약과 근면은 시장의 맹아  
청교도는 항의와 실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하여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결혼하고  
시장에서 분투하네  
부처님은 열반과 극락정토  
뼈 맛 남은 싯다르타의 고행은  
보리수를 향하고  
퉁퉁한 부항처럼 되어  
풍요를 느끼게 하네  
이차돈은 하얀 피 성스러운 돈  
신돈은 매운 돈 싯도불이  
사찰은 동양의 풍요  
학자들은 불교 자본주의를 말하네  
이슬람은 알라  
이슬처럼 되어 알자  
사막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행이 되어  
오아시스를 향하고

우리는 이슬과 지혜를 느끼네  
석유를 팔면서  
칼리프가 되고  
칼처럼 날카로운  
코란을 형님 삼네  
세상은 칼과 코란의 전쟁터  
자유무역은 자본 이론  
세계무역센터는 문명의 충돌  
공명의 유교는  
음악과 배움으로  
천하를 주유하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자  
서세 동점으로  
사라져 간 공맹정신  
이제는 인간 자본주의  
우리는 기부하고  
사회적 기업을 말하네  
자본주의는 우리의 해학  
이름도 재미있네  
남진과 나훈아  
진짜 남자 남진  
남자는 지구력  
소팔메토 소처럼 똑심있게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  
노래하며 눈 웃음 치네  
나는 훈장 단 아이야  
훈장 단 아이는 사랑  
훈장 단 아이는 영생  
노래 영영과 사랑은  
심금을 울리고  
트롯의 임영웅은  
가요 왕 영웅이라네  
급기야 연예 시장은 인수전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전으로  
시장과 자본주의는 무한궤도  
인간의 생존 법칙  
사람들 진짜 돈의 논리야  
아무리 인간성 회복하자 외쳐도  
우리는 오늘 점심은 누가 내나  
공무원을 기르자  
아무리 법을 가르치고  
납세의 의무를 말해도  
교통 범칙금에 오늘 피 봤다  
충성과 윤리를  
먹고 사는 국가도  
이제는 민영화로  
민영화하면  
효율인지 가성비인지  
생산하고 남기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교도소도 군대도  
민영화로 사기업화로  
군인이 충성심 없이  
전장에 갈 수 있는지  
교도관과 죄수가  
섹스는 안 하는지  
이근은 돈인지 충성심인지  
근력 자랑인지  
우크라이나 애국 용사가 되고  
테스형 멜로디와 함께  
우리는 기쁜건지 슬픈건지

15. • 알타리 무우와 공군 1호기 •

부제: 사이공과 만사무사

국가는 오른쪽  
벽오동의 벽과 같이 탄탄한  
큰 세상의 복지  
우리는 님과 봉황을 그리네  
선생님들은 왼쪽  
김도향의 노래는  
하늘아 무너져라  
잔별아 쏟아져라  
도령들의 향기  
한국인들의 패기  
선생님들은 알타리 무우  
봉황은 밀리타리 공군 1호기  
알은 타 사람과  
이상을 향하고  
봉황은 국가와  
강한 군대를 향하네  
우리는 독법계  
학부의 학생은  
버처러 나치가 되고  
나치는 독일 선생님과 도서관  
법서를 펴드네  
정의를 그려 보고  
법률행위를 생각하네  
비교법을 하자  
대학원의 학생은  
미지를 향하고 김지미의 정서로  
처치는 미국 선생님과 사모님  
처치는 교회가 되고  
로렌스는 법을 설교하네  
교수들은 우리의 친구들

풍요를 그리고  
    국가와 님을 걱정하며  
    벽오동을 심네  
    하나님은 자 우리  
    시대의 선생이다  
    송자 같은 우리들  
송씨 문중의 어머니 같고  
    노래 부르는 공자 같네  
    윤필상 같은 우리들  
    학문의 윤기 같고  
    필의 자부심 같네  
우파 선생들은 밀리타리  
    포탄과 우크라이나  
    국제관계를 걱정하고  
좌파 선생들은 알타리  
    자유방임이 아니다  
    큰 국가를 통하여  
    윤리를 실현하자  
    선생님의 쉼터는  
    아무데나 접바둑  
바둑은 이성계 우리 이성의 세계  
    바둑은 복잡계 AI처럼 어렵네  
    우리는 접바둑  
    청출어람의 학생을 그리며  
아무데나 가가호호의 즐거움  
    오공도사처럼 도사가 되고  
    아무데나처럼 정치가 되네  
    바둑은 사이공  
    송영길과 프랑스 처럼  
    사적인 친밀함에도  
    우리 사이에는 공이 있다  
    웃고 인사하지만  
    치열한 바둑의 세계로  
    뭉든지 먹어 치운다는

베트남의 미국 돼지들은  
야구 배트인지 콩인지  
한이 맺히고  
사이공이라는 말에  
멋지게 웃네  
송열길은 새로운 영국돼지  
우리는 영어학원으로  
막돼먹은 영애씨로  
옛 주인 프랑스는  
이게 무슨 일인교?  
무슨 일인가 돌아보니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의  
제 2차 한국 전쟁  
중국은 20 여년전  
한반도에서 짹짹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시원하네  
막사이사이상은  
동남아의 평화  
막 사이 사이 마다  
평화의 염원이  
교수들은 꼴통 같은 자유인들  
막을 치고 이루어낸  
이력서의 수 많은 업적들  
보잘 것 없는 연금에도  
아프리카 만사무사 대왕 같은  
마음의 부자들

16. • 한국 자본주의의 하루 •

부제: 천경자 조수미 서세원 동규철

납자루떼가 뭔가요?  
자 우리의 남자를 바치자  
풍요를 그리는 수많은 개미들  
서세가 원이었던 서세원  
후기 식민지 시대 신생국들은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등소평과 중국은  
새로운 소유권법  
새로운 계약법  
서세동점의 시대는 가고  
동서양은 균형으로  
우리는 드라마  
금이야 옥이야  
동규철 사장이 되어  
철들어라 따져 보네  
하늘은 경제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사회주의  
천경자 화백처럼  
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 처럼  
개발관료들과 함께  
시작한 한국의 자본주의  
남북분단은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우리의 한이 되고  
자본주의는 복덕방  
로또 복권 같고  
라스베가스 도박장 같네  
포춘지는 자본을 향하고

손가락을 비비는  
 행운의 제스처  
 워싱턴 먼쓰리는  
 노동을 향하고  
 정부를 깨우치네  
 한국의 자본주의는  
 금이야 옥이야  
 금강산과 동규철  
 우리의 예술은 한예총  
 한예술은 우리의 슬기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한효주는 우리의 포춘  
 수많은 한국의 백만장자들  
 우리의 종교는 한기총  
 전광훈은 기독 자본주의  
 예수님의 파워는  
 거부할 수 없는 자본주의 동력  
 빌딩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네  
 나찌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후발 자본국은 시장보다는 국가  
 유치산업을 보호하자  
 국가가 기업이고  
 독일 노동자의 복지가  
 국가 이념이라네  
 이제는 선진국도 경제애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은 비난받고  
 세계무역기구는  
 보조금 조치를 철폐하라  
 대한민국 제 1호 영업사원  
 시장과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히틀러 닮은 우파 당 대표

히틀러와 유태인은  
사이가 안 좋은데  
킵킵 웃는 시민들  
다음에는 꼭 여의도로  
다짐하는 호프풀들  
한국 자본주의 하루는  
천경자의 미술로  
조수미의 음악으로



17. • 표현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 •

부제: 브루스 커밍스의 한반도

지식인은 콩물  
지식인은 버려지  
학교는 콩물 대학  
학교는 버려지 대학  
콩물은 코를 만지작  
거리며 생각하는 물건  
습관과 반복은 콩물이 되고  
버려지는 지네 같이  
얇의 삶을 좋아하네  
여름의 콩물 국수집은  
맛따라 멋따라  
이런 버려지 같은  
한 발의 총성은  
역사를 바꾸고  
자 나의 진실을 들어 봐  
남쪽이 문제야  
브루스 커밍스는  
연애한다는 연예인처럼  
북침설로 커밍 아웃  
자 나의 진실을 들어 봐  
김구는 김일성한테 당한거야  
우리는 표현의 자유  
학자들 논문과 책은  
온 세상 디테일들  
주말 선데이 타임즈  
가십 기사 같고  
지네들의 이야기들  
기네스북 같네  
이거 학자들 지식인들인데  
증거가 있나

실증적 주장인가  
야 새로운 주장이다  
야 시카고 학자다  
여자 같이 신나다가  
고개를 가우똥  
헛갈린 우리들은  
무당처럼 되어  
이승만은 이성의 승리  
이승의 시간만  
김일성은 하루 강아지  
대대 손손 태양과 함께  
김원봉은 진짜 봉인 사람인가  
김구는 테러리스트  
안두희는 안전한  
머리의 즐거움인가  
봉수와 지봉의 밤은  
지봉유설 같은 야사로  
봉수와 지봉이의 낮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자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방어하자  
히틀러의 역사 유산은 처절하고  
국군이나 인민군이나  
정체를 밝혀라  
우리는 지식인  
우리는 자유인  
황장엽과 태영호는  
국군과 인민군을 왔다 갔다  
우리는 정치인  
하태경은 경사 났네 경사 났네  
출세하라 돈 벌어라  
하영제는 영어 해라 영어 해라  
출세한 사장님들처럼

역대 통령들처럼

18. • 판사와 출판사 •

부제: 알함브라와 지불알타  
성인은 지성의 시작  
우리는 지센 아는 것은 힘이다  
우리는 상투를 틀고 결혼하네  
총각들과 아가씨들은  
갓쓴 도령 하얀 면사포를 그리며  
총각김치다 갓김치다 백김치다  
급기야 열나게 일하자  
열무 김치까지 맛있게  
가난한 삶속에도  
가풀어의 행복을  
법원 한켠 방글라데쉬 같이  
시작했던 젊은 시절  
사무실 방 책상 앞에서  
대쉬하듯 쓰던 글들  
카르도조 기분 내다  
가시 많은 생선들을 만나  
상급심에서 깨지고  
동기들과 함께 출판사로  
판사들의 세계를 떠나  
지식인의 삶이 되어 버렸네  
중년의 학자들은 박영사로  
황인욱 선생님은 한국인의 결기  
오래로 옮겨 길게 길게  
노년의 삶은  
사할린 동포와 함께  
죽음을 향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감들과 지식인들의 세계  
남긴 교훈들은  
칼 같이 지혜롭고  
우리는 아하! 감탄하고 베이네

하느님은 잔인과  
견마지로의 이분법  
아침부터 잔인하다  
잔인하다 외치네  
아니 시험 감독도 아니고  
질서 유지인도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도 아닌데  
왜 잔인하시오  
잔인하다 잔인하다 말씀에  
해피 이름의 강아지 같던  
행복은 저멀리  
아하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우리는 다시 해피가 되고  
노년의 소확행 삶에 젖네  
견마지로의 젊은 시절  
이세민을 무서운 눈으로 응시하는  
드라마 속 연개소문은 장안에  
떠 도는 불독 소문 같고  
와와 울부짖는 드라마 속  
광개토대왕은 미친듯이  
불을 뿜는 도사견 같네  
우리는 한견우와 한지영을 벗 삼아  
공부는 허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를 연구하고  
오בות한 지식 공동체를 이루네  
견마지로의 젊은 시절은  
개자 돌림에서  
말자 돌림으로  
말라카는 쉐이프한 사장님  
마다가스까르는  
노동일 선생님  
말들의 방구가 까르르 웃는

그림 같이 큰 섬  
소년이로 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우리는 지중해의 정서가 되고  
성공한 학자들은  
묵직하게 되어  
지중해로 모이네  
수 많은 책과 논문은 가짜 돈  
학자들은 수단과 지부티  
방법론은 수단이 되고  
쌓인 책과 논문은  
부티가 나는 우리의 지식들  
알함브라는 스페인의 궁전  
부럽다 알인지 함인지  
애처러운 기타 멜로디  
젊은 판사의 궁전 같고  
지불알타는 해협 이름  
영국과 유럽간 전략 요충지  
불알을 태우자  
출판사의 지식인들  
섬나라 영국은  
유럽의 관문이다  
절대로 뺏길 수 없고  
지중해의 정서는  
르느와르의 포근함을 선사하네  
노닥거리던 가짜의 아침은  
뉴스에 정신이 번쩍  
수단은 반란으로 시끌법적  
지불알타 영토 분쟁은  
브렉시트로 재점화  
아침 신문은  
세계 책의 날  
책 읽는 서울광장

19. • 해체주의 시대의 친구들 •

부제: 노리에가와 폴 포트

해체주의는 우리의 현대 철학  
난마 같은 국제사회  
잔인한 정치  
잔인한 주의 주장으로부터의 탈출구  
사회주의가 뭐래요?  
우리는 다 이긴다 다 이겨  
끓는 주전자 폴포트에 서고  
평등 세상을 그리네  
어 아니 그게 아니네  
다르다 다르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개인주의가 뭐래요?  
나는 다 이긴다 다 이겨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에자 학위를 노리는  
노리에가가 되어  
말을 파는지 마약을 파는지  
파나마의 정서가 되네  
클린턴은 혼탁한 세상에  
법의 정의를  
폴 포트를 인권 침해 사범으로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사범으로  
어린시절 노리에가 같고  
폴포트 같던  
60세 할아버지는  
사회주의 본산  
우리는 둥글게 심는다  
파리 8대학 이환식 지도 교수님  
자유주의 본산  
우리는 주 예수 교회당

처치 선생님을 떠 올리네  
클린턴, 노리에가,  
폴포트, 지도 교수님들  
유학 시절 해체주의  
친구들을 돌아보다  
한국 정치 덕에 현실이 되고  
몇 년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수?  
뭐가 대수야?  
똑같이 한국에서 먹고 살았구나  
그럼 다 그렇고 그런거야  
밥이나 굶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웃네  
정치는 우리의 육체  
우리는 인권을 말하고  
출입국 관리소를 찾네  
친구들은 우리의 마음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맞을까?  
오랜만에 마음을 맞춰 보자  
골프장으로 마작으로 룸싸롱으로  
서서 하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게 뭐래요? 골프  
앉아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게 뭐래요? 마작  
앉으나 서나 가장  
재미있는게 뭐래요? 그거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 보려  
골프장으로 마작판으로  
룸싸롱으로  
헤어진 친구들은  
넘버원 처럼 되고  
넘버원은 뭐나 된다는  
듯이 또 일터로  
헤어진 친구들은

해피 이름의 강아지  
오랜만의 휴식에 행복한 사람  
아침의 우리는  
월리암으로 클린턴으로  
하리라 청소하자  
사무실을 청소하고  
책상 앞을 정리하네  
아침의 우리는 버력으로 오바마로  
미군 병영 평택으로  
지를 창조하자 지제역으로  
큰 세상에서 변호사들은  
법과 평화를 향하여 달리는 말  
노벨 평화상을 넘죽 받네

20. • 인생과 연극 •

부제: 드라마 아들과 딸

인생은 한 판의 연극이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드라마로 나타나고  
작가의 혜안은  
인생을 알게 하네  
우리는 한예총 만세  
세상 속 우리의 정은 아들과 딸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  
우리는 부모님의 아들과 딸  
아들은 우리의 생산자  
노동은 애들이 낳고  
앵벌이 같은 아들의 일생  
노년의 아들은 우리의 아버지  
딸은 이 땅의 소비자  
따는데는 도사  
따자에 랄랄라가 붙어  
딸이 되었나  
우리 복지의 상징  
노년의 딸들은 우리의 어머니  
못 살던 시대  
우리는 남아 선호 사상  
아들 이름은 귀하다  
귀남이가 되고  
딸 이름은  
딸이라고 사람이 아니냐  
후지지만 나도 남자랑 똑같다  
후남이가 되네  
강성자는 힘센 여사장  
귀남이를 거들떠도 안 보고  
우리는 청년 실업을 걱정하네

후남이는 안전이다인지  
자 미국이다인지  
안미현과 친하고  
안미현은 미국 사람처럼  
부와 출세를 좋아하는지  
돈 많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석호를 사랑하네  
종말은 군인 같은 원만함  
우리는 사람 종자  
우리는 일해야 하는 마 종자  
일생을 달려온 말 같고  
인생 종말 인생 터미널을 알고  
종말은 귀남이를 좋아하네  
딸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랑  
김희애와 어울리고  
아들은 우리의 노동  
넘버 원 최고가 되자  
정다운 최수종이

21. • 자코뱅과 지롱드 •

부제: 폭스 뉴스와 라이온 킹

우리는 생로병사  
늙는걸 싫어하고  
병날까 조심하고  
죽을까 두려워 하네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싶고  
부족함과 모자람은  
생일로 때우고  
질기고 긴 인생은  
주님의 말씀  
거듭나라로 위로하네  
생명은 우리의 환희  
세상의 축복을 향하네  
세상은 많은 사람들  
사람과 사람은 성악설  
우리는 봉기한 만적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  
신분상승을 꿈꾸고  
홉즈가 말한대로  
자연상태의 세상은  
고려의 무인시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투쟁은 사람의 종말  
망한 것은 망이로  
망한 이유가 뭐래요 망소이로  
마치 공주 명학소 이름처럼  
우리는 공주가 되어  
밝음을 찾고 학문을 찾네  
만적과 망이 망소이는  
소박하고 순수한 한국의 맘스들  
갈등이론은 민란으로

신분 상승의 꿈은 계급 투쟁으로  
 사람들은 서로 약속하고  
 사회를 만들자 계약하네  
 성선설은 비로소 시작하고  
 약에도 규칙이 있다  
 개념과 시스템이 시작되네  
 개념과 시스템을 이야기 하자  
 기성 시스템은 부정의 하고  
 자코뱅은 자 코를 받아라 빅뱅으로  
 지롱드는 우리는  
 하루 강아지가 아니다  
 그동안 쌓인 지식은 길고  
 옛이나 드시라네  
 폭스는 우파 방송  
 미국의 시스템  
 미국의 문명  
 흑인 여성 대법관은  
 문명국 법률가에서  
 르완다 야만인이 되고  
 앵커는 그만 목이 딸랑  
 사자는 백수의 왕  
 우파의 상징  
 전통과 신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라이온은 거짓은  
 계속이라는 말로 들리네  
 유럽은 구세계  
 세상의 우파였던 시절  
 노예무역을 반성하는 이때  
 이제는 미국 세상이다  
 인간 사회 거짓과 신화는  
 계속되어야 하네  
 사자는 자연의 정의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큰 형은 깊은 생각의 사자  
한국의 심수봉  
미국의 심바  
상처 받은 동생은 스카  
무인처럼 수고롭고  
광부처럼 세상을 파다  
죽은 아버지 사자  
무파사와 아들들 이야기  
정치적 지혜는  
마키아 벨리 군주론  
군주는 여우와 사자처럼  
폭스 뉴스와 라이온 킹으로  
정치적 투쟁은  
프랑스 혁명과 삼부회  
좌우 정치는 사우스 포와  
천하장사처럼  
자코뱅과 지롱드로  
우리는 돌아 보네  
만적 망이 망소이  
노예 무역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22. • 영터리 기록문화관 •

부제: 사마천과 마크롱

말은 우리의 노동  
사람들의 역사  
아침의 한량은  
영터리 사마천  
말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기록하네  
황소의 기세와  
직장인의 칼들은  
집을 들썩 들썩  
황소의 난으로  
안록산의 난으로  
당나라 큰 집도  
이쁜 귀비도 위험하고  
황소는 애플이 되고  
안록산은 스티브 잡스가 되어  
세상은 부처님  
말씀처럼 윤회하네  
이승의 윤회는 좌우 정치  
디 산티스는 한국의 강용석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  
좌파와 문화전쟁을  
디즈니는 끝없는  
우리의 꿈의 세계  
산티스는  
게이 발언 하지 말아라  
특별자치구 지위 없다  
또 다시 대법원은  
미국과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왜 월드 시리즈인지

왜 미국과 세계인지  
 통상이냐 전쟁이냐  
 신미양요 병인양요의 경험  
 헌법의 통상조항은  
 주들 사이 전쟁하지마  
 미국 경제를  
 통합하고 수호하네  
 아이디어는  
 고스란히 세계로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경제를  
 통합하고 수호하네  
 디즈니 아이들의 꿈은  
 진보의 아이콘  
 문화전쟁 역사와 현실은  
 보수의 심장  
 영국의 좌우는  
 토니 블레어와  
 데이빗 캐머론  
 우리는 토한다  
 토니 블레어가 되어  
 보수는 불꽃처럼 타고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영국의 영광을 위하여  
 열변을 토하네  
 데이빗은 빗장 수비하는 하루  
 우리는 캐머론  
 이름은 케이머 온(Camer On)이 되어  
 이미 커밍한 사람들  
 우리의 영광은 계속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니다  
 대영제국의 옛 영화로  
 트러스는 정치가  
 티 자를 못 붙이고

트러스트처럼 틀지 못하네  
시민의 눈치를 보다  
부자 감세정책으로 낙마하고  
세상은 파산난 팀 쿡  
정치는 심플리  
정치는 하나회  
코리안 에어라인이  
아시아나 에어라인 보다 낮고  
에어 프랑스가  
유럽 에어버스보다 낮네  
연합하자는 위기로  
연합체들은 멍하니  
회원국들을 돌아 보네  
유나이티드 유에스는  
이념이 다르구나  
대법원은 수고롭고  
이념은 현실이 되네  
유나이티드 유엔은  
힘이 다르구나  
유엔은 무기력하고  
우리 전쟁은 앞이 안보이네  
마크롱은 서양의 사마천  
애널학파인지 이름도  
기록문화관 같고  
아침의 한량은  
세상은 말장난이 아니구나  
주섬 주섬 출근길을 서두르네

23. • 삼총사 달타냥과 박광온 •

부제: 따로국밥과 한국 정치

따로국밥 하나 주세요  
혼자의 시간은  
예술인과 창작인의 일상  
오늘도 시로 골프로  
작업실로 연구실로  
하루는 우리의 인생  
기상 나팔은 우리의 탄신  
기상 나팔과 함께 들리는  
천지 창조와 말씀  
너는 아무 것도 아니다  
아니 것이라뇨?  
저는 사람인데요  
옥동자가 아니고 물건인가요?  
하느님은 이무기를 알라네  
이무기가 뭐래요?  
이무기는 달타냥  
달이 타냐?  
달타냐가 계속되어  
달타냥이 되고  
달은 타 삼총사로  
사람은 보름달  
우리는 옥동자  
사람은 멋  
우리는 오르세  
이무기는 강한 이빨 강한 무기  
호랑이처럼 사람을 위협하고  
핵폭탄은 이무기의 왕  
해처럼 번쩍 온 세상을 하얗게  
핵 보유국은 섬썩  
핵 비보유국은 나썩

아무것도 아니다 나뿔  
 윤통의 미국 방문과 함께  
 아침의 하느님을 이해하네  
 핵폭탄은 솔로  
 자기를 지키자는 이란 북한  
 공유라도 하자  
 핵우산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정상들의 만남은 커플  
 우리는 정상따라 커플이 되고  
 용이 되어 세상의 복지로  
 우리는 사람들  
 우리는 멋쟁이  
 우리는 오르세  
 우리의 하루는  
 사람의 세계  
 이무기의 세계  
 용의 세계  
 정치의 하루는 사람의 세계  
 생산자의 하루는 이무기의 세계  
 소비자의 하루는 용의 세계  
 어린 시절 삼총사와 달타냥  
 하느님의 뜻은  
 박사들의 빛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박광온이 되어  
 라이온 같이 온 온 온  
 좌파는 박광온으로  
 우파는 라이온으로  
 사자같은 윤통의 미국 방문  
 새로운 원내 대표는 박광온  
 대한민국과 정치는 끊임이 없네

24. • 졸업조항과 하느님 코드 •

부제: 미주리 v. 홀란드에 붙여

졸업 조항  
세상은 거대한 학교  
우리는 학교의 혜택을 받으며  
경제를 일으키고  
자연을 극복하네  
해적 행위 마약 밀매  
불량 학생 이제 혜택은 없다  
더 이상 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니네  
이제 이만큼 컸으니  
졸업해야지  
오이씨디는 선진국 클럽  
이름대로 오이씨  
큰 세상 이성의 씨 국가들  
우리는 오이씨디?  
선진국이지? 물어 보고  
국가위상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통령은 우리의 영광  
가입을 기뻐하고  
선진국 지위가 되면  
이제 개도국 우대조치 없다  
실리적 참모들은 주저하네  
미국은 연방국가  
유럽연합과  
국제연합의 스승  
우리는 미국의 주인이다  
미주리 협정은  
미국의 분열을 막고  
미국의 모범법을 본떠  
유엔도 모범법

법은 이래야 한다  
무수한 연성법들은  
인류의 지혜  
핵이나 항공모함이 다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승  
우리는 세상과 역사의 교훈을 느끼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도서관의 공부하는 우리들  
책을 읽는 우리들은 예리한 눈이 되고  
이기적일 수 밖에 없네  
이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다  
마치 특허관세제도 졸업조항처럼  
뾰족다 컸다 정상인이 되거라  
우리의 머리털은  
국제사회와 국내사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국제사회  
우리는 걸레처럼 큰 세상에 존재하고  
나는 르느와르  
인문은 풍성해지네  
우리는 모두 인문이 되고  
세상은 큰 술통  
국내사회는 미켈란젤로  
나라는 아름답다  
나라는 쌀처럼 쌀쌀 맞다  
미국을 캐고  
제비처럼 되바라져 같고  
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드네  
국제사회와 국가사회는  
미주리 v. 홀란드  
홀란드는 네덜란드  
평화의 국제사회는  
너덜거리는 수 많은 나라들  
우리는 출판사의 국가가 되어 책을 만드네

홀란드는 새들의 자유  
국제사회 같은 자유와 인문으로  
홀란드는 새를 보호하는 공무원  
연방법을 집행했을 뿐인데요  
미주리는 주는 본래의 국가  
연방헌법 계약을 지켜라  
연방의회는 주어진 권한만  
국가사회는 사람의 자유  
국제사회는 새들의 자유  
우리는 새들이냐 국가냐  
에고고 미주리는 깨지고  
미주리가 미국 주인이 아니구나  
말 장난 같은 새들의 아침은  
다시 또 중력법칙  
뉴턴의 사과로



25. • 샘쌍둥이와 여인 천하 •

부제: 보댕, 보단스키, 코어스, 팀쿱의 아침

스코온 비웃는다는게 뭐냐  
티도 안 나는 일을 자꾸 한다  
아니 정치가레매 사장이라메  
그래서 자꾸 한다  
결말은 결국 자기 주제이겠지만  
우리는 정치적 동물  
사람과 시스템은  
군집사회를 인간사회로  
세계화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은  
힘센 미국 조지 부시로  
도널드 트럼프로  
트럼프처럼 승리하자  
부시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콜라병 든  
아프리카 부시맨  
정치는 우리 영혼들의 결합  
순화된 시민들 정이 든 시민들  
우리는 아프리카 부시맨에서  
위대한 한국인으로  
위대한 미국인으로  
위대한 중국인으로  
샘쌍둥이(siam twins)는 우리의 비극  
침 흘리는 남자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  
현대판 아벨과 카인  
아담과 이브였던 우리들  
영혼의 결합은  
모리배로 파탄나고  
락원에서 쫓겨나  
아벨과 카인이 되네

순수했던 세상은  
서로를 샘내며 탐욕과 음해로  
탐욕과 음해는  
오만가지 육두문자로  
밟는다 찬다 치인다  
안되겠다 마음을 바꾸자  
우리는 최재경  
경사를 좋아하고 넘버원 넘버원  
착한 아벨은 프로테스탄트  
아이는 벨이 있는지  
날마다 항의하고  
악한 카인은 차 사람들  
나는 가야해 밟는다 찬다 어쩐다  
급기야 너는 치어 죽는다  
쌈쌍둥이의 성공적 수술  
하느님의 실험은 실패한 암살  
우리는 보우 선사가 되어  
서로 웃는 보댕과 보단스키  
쌍둥이 하나는 보댕  
땡 기분의 여자  
다른 하나는 보단스키  
달구나를 즐기는 여자  
보댕은 우리의 국가  
보단스키는 우리의 시장  
현실의 시장은  
코어스 정리로 회사로  
세상은 많은 사람들  
보우들은 때를 지어  
회사를 만들고 팀이되고  
팀 쿡 이름 같이 요리사가 되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요셉 같고 주 예수 같은  
우리의 하루는  
회사로 시장으로 국가로

엠 아이 티? 내가 티가 나나요?  
티와 스코온으로 시작한 아침은  
보댕, 보단스키, 코어스,  
팀 쿡이 생각나는  
바쁜 월요일 아침

26. • 컴퓨터와 디아스포라 •

부제: 파스칼과 로댕의 하루

배뱅이는 귀한집 무남독녀  
부의 상징 배  
계속되는 배는 배뱅이  
머리 좋으면 타락한다  
여아들은 몸 가짐이나  
이른 죽음은 박수무당의 희롱감  
골뱅이는 사도 광산  
머리 좋으면 딴 생각한다  
뼈다귀나 피지컬이나  
사용자는 착취하고  
뱅이와 팽이는 현재 진행형  
먹고 배가 되어 돌고  
안 돌면 패서 돌리고  
뱅이와 팽이는 우리의 충성  
도라 도라 도라 같은 가미가제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파자 파자 칼처럼 날카로운  
우리의 지성  
로댕은 법은 잘 모르지만 땡이라네  
법은 사람 사람이 무엇인지 그려 보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고  
나찌와 찌오니즘은 비슷한 속내  
찌가 없어 모자란 우리  
나라가 없고 핵이 없다  
뱅이와 팽이는  
바로 옆 모자란 사람들  
도라 도라 도라의  
가미가제처럼 슬프고  
유대인들은 떠돌아  
다니고 국가가 모자란 사람들

디아스포라는  
 어린 박사들처럼 애답네  
 나찌(Nazi)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우리도 찌를 갖자  
 찌오니즘(Zionism)은 이스라엘  
 건국에 생사를 거네  
 베르나도트 백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중재자  
 나는 중립적이다  
 중립은 안된다 필수이다  
 중재자는 암살되네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  
 유엔은 기능적 보호권  
 유엔과 이스라엘은  
 쌈밥집으로  
 찌가 없다 공부해라 했더니  
 학생들은 거 찌라는게 그거고  
 찌온은 좃병이 아닌가요?  
 영천 삼사 훈련사관 시절  
 추억에 눈을 감고  
 사장과 장관들은  
 나는 배짱이다 어쩔래?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 실소하네  
 배뱅이는 부자집 딸  
 시집 못가고 죽은 어린 처녀  
 배짱이는 성공한 사장님  
 매일 짜라 점심은 짜장면으로  
 책상위 컴퓨터를 켜보니  
 찌 같고 골뱅이 같은  
 로그인 시그널은 정답고  
 사도광산 같은  
 컴퓨터에 피곤해 하면서도  
 야 디아스포라가 아니다

컴퓨터에 다 있다  
감탄하네  
아침의 우리는 찌를 갖고  
저녁의 우리는  
골뱅이 무침에 시원한 맥주를

27. • 벚꽃과 진달래 •

부제: 아너리우스와 아카디우스

천원짜리 아침밥에  
눈물 짓고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한다는  
신문 기사에 감격하는 아침  
우리는 학창 시절의  
추억에 젖고  
현실에서 이상으로  
꿈을 꾸네[~~어~~]  
돌아 보면 한판의  
꿈 같은 인생 살이  
신의 뜻은 마치  
학교로 가거라  
아수라 같은 속세는  
굴뚝과 공장으로  
상징되는 모더니즘  
이제는 주름살 노인  
포르쉐 예술차로 상징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이제 그만  
니체는 너의 육체  
니힐리즘은 너의 언덕  
학자를 하거라 니 손으로  
예술가처럼 장인처럼  
쌓다 허무는 모래성처럼  
허무할 지라도  
아수라 같은 속세는 아웅산  
아이들은 사내가 되고  
험한 산이 되네  
선열들은 산화하고

아수라 같은 속세는 맥아더  
 퍼시픽은 맥이 살아 있는 아이  
 좀더 전진 중국까지 핵폭하자  
 진짜 남자야 트루맨에 좌절하고  
 하느님은 세상은 험하다  
 학교에서 봉사하거라  
 맥아더처럼 정진하고  
 트루맨처럼 멋있게  
 아수라 같은 속세는  
 삼풍 백화점  
 삼풍 백화점은 무너지고  
 삼자 돌림 세속의 시간은 끝  
 하느님은 학교로 가라네  
 아수라 같은 속세는 세월호  
 수 많은 어린 영혼들  
 이제 어린 시절  
 영예는 시효 소멸  
 하느님은 학교로 가라네  
 학교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  
 흐린 날 아침은 늑대 젓을 빠는  
 로물루스처럼 되고  
 로물루스는 로마의 시조  
 법은 물건이 되어  
 나라는 루루루  
 로마는 법의 상징  
 인간 제도의 시작  
 나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다  
 나는 주리라  
 줄리우스 개살이 되고  
 서로마 황제는 아너리우스  
 우등 졸업생  
 법대 위의 존엄한 심판관  
 동로마 황제는 아카디우스  
 우리는 꿈을 꾸는 아이들

이상과 지성은 학교로 아카데미로  
벚꽃 지는 순서로  
학교가 문 닫는다네  
이국 같은 남국풍  
정서의 고향에서  
우울한 신문 기사는  
아침을 일깨우고  
젊은 시절 벗과 함께  
벚꽃에서 시작한 우리들 인생  
보름달 같았던 청춘 시절  
이제 노락빈대 선생이 되었나  
김소월 이름처럼  
소박한 노년의 달이 되었나  
말장난 같은  
시들이 어느덧 쌓여  
임 가는 길에 뿌려진  
영변 약산 진달래 같네

28. • 나는 왕이로소이다 •

부제: 가봉과 정소녀

냉전 구도의 데자뷰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은  
동맹을 확인하고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실 정치와 국제관계로  
좌는 둥글다 크다  
입은 환구시보  
우리는 핵심이다 원칙이다  
입은 워싱턴 포스트  
좌는 이념 우는 현실  
현실은 포인트다  
르네 데카르트는 원칙과 방법론  
이념은 모든 사람이다  
지오반니 비코는 만물상과  
하느님 아래 만인의 평등  
워싱턴의 현실은 개발론  
워싱턴 컨센서스는  
선진국과 국제금융자본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베이징의 이념은 환경론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  
주권과 국가주도 경제체제로  
기후는 우리의 머리털  
우리는 덩다 춥다  
미세먼지에 걱정하고  
파리기후협약은 좌우의 합의  
생시몽의 그림 같은 녹색 도시  
대대 손손 청정한 환경은

우리의 이념  
아담 스미스의 치열한 시장  
이행계획과 포인트 시스템은  
우리의 현실  
우리는 기후에 적응하고  
단정하게 이발하네  
세상과 사람들은 엉터리  
AI 세상에도  
여전히 갈등과 반목  
사람들은 배짱이  
사람들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AI는 걱정 자매 독수리 오형제  
우리들은 연산군과 임사홍  
우리들은 가봉과 정소녀  
엉터리 왕이 되고  
헛소문도 마다 않네  
말스가 대수냐  
월급받고 잘 놀면 되지  
그 많던 스칼라리(scholarly)  
그 많던 로우여리(lawyerly)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왕처럼 타락하네  
학처럼 하얗고 학자처럼 말 많은  
AI는 머리를 극적 극적  
AI는 임사홍이에요  
사람의 탈을 쓴 님  
연산군을 좋아하고  
큰 세상을 생각할 뿐이에요  
AI는 가봉이에요  
우리의 가업이고  
우리의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나요

29. • 신화, 배비장과 애랑 •

부제: 어린이날의 단상

나는 왕이로소이다  
세종 대왕 같은 복락  
왕건 같은 기백  
가짜 왕 어린 시절 듣던 조크가  
노년이 되니 새삼 그림고  
왕상한 후배는  
가짜 왕은 상한데요  
거듭나세요  
아니면 연산군이 되어  
임사홍과 놀던지  
아니면 광해군이 되어  
김자점과 놀던지  
아이들은 라미란이 되고  
은수미가 되어  
엘에어로 미국으로  
두 얼굴의 야누스가 되고  
아름다운 미국이 되네  
하느님의 뜻은 무식을 타파하자  
어린 시절 신화는 무너지고  
아이들이 나아요  
다시 아이들로 생사람으로  
진리를 구하고 학문을 향하네  
뽀빠이 살려줘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나고  
이상을 그리는 용  
학도로 거듭나네  
어린이 날의 아침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 보게 하고

아자 돌림의 해학과 함께  
 피노키오는 오 피 노!  
 세상은 더럽다  
 어떻게 살아 봐야지  
 피터팬은 세상은 노동  
 피같이 순수하다  
 계속 부채를 부치자  
 하느님은 애들을 키우자  
 크레물린 크레도스  
 아이들의 육체는 커져 린다처럼  
 아이들의 지식은 커져 컴퓨터 도스처럼  
 기름덩어리 그리스  
 아이들은 아테네  
 배 속의 태아처럼  
 진리를 말하네  
 플라톤은 어른 선생님  
 아리스토 텔레스는  
 전화방 기록인지 무수한 진리를  
 아고라는 아이들의 창조성  
 아낙사고라스는 아이들은 낙사  
 어른인 나는 외로운 라라라  
 페리클래스는 아이들을 모으고  
 클래스를 만들어 학폭도 아닌 것이  
 학생들이 샌드백인가  
 이렇다 저렇다 힘을 쓰네  
 어른은 예수 아이들은 아편  
 생산성과 시장 문제는  
 정치적 갈등으로  
 종교는 아편이야 예수쟁이군  
 신화는 시장과 자본주의가 만든 거짓  
 각성하라 의식화해라 아무리 외쳐도  
 라사 페어 이코노미는  
 자기 희생의 신화와  
 아이들로 버티고

개발국가 자본주의는  
 국민도 아이들이 되어  
 국민교육헌장으로  
 배비장은 노락빈대  
 배 뿔룩 탐관오리처럼 되어  
 늙은 적혈구를 죽여야 되요  
 비장은 관찮으신가?  
 애랑 노세요 강의실로 강의실로  
 노년의 선생은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우리는 중력이 있어야 산다  
 밥숟갈을 들자  
 중력에서 발전하여  
 상대성이론으로  
 천재 아이는 타인을 상대로 슈를  
 물리학은 힘  
 힘은 중력과 스피드에서  
 우리는 중력을 찾고 스피드가 되어  
 힘은 만유인력 상대적이야  
 요모 조모 아이들을 살펴 보고  
 아이들도 사람이다  
 물리를 넘어 인간적 처우를  
 오우 피 노!  
 유엔 아동권리협약으로  
 노년의 선생들은  
 이미배가 되어  
 젊은 시절 뽀빠이  
 이상룡 같던 기분을 돌아보네  
 강의 동영상 보면서  
 이미자 주현미 같은가  
 이력서를 보면서  
 이상룡 이근 같은가  
 빼갈과 런던 보이즈  
 하렘을 왔다 갔다 하다

먼저간 조상처럼  
이승에서 선업은 쌓았나  
선산을 향하네

30. • 기봉스와 비엔나의 아침 •

부제: 주세붕과 기대승

봄비가 만물을 적시는  
생명들의 아침  
우리들은 기봉스가 되어  
기영이로 봉들로  
비엔나의 정서는  
우리의 긴 인생살이  
비 없이 살 수 없는  
비인이 되고  
비 그리고 나 비엔나가 되어  
자기를 돌아 보네  
비엔나의 천재들  
프로이드는 프로  
우리의 긴 직업 생활  
사람 속은 대 부분 이드(Id)인지  
짐승인지 그렇대요  
직업과 잠재 의식은 정신분석학으로  
피아제는 아마추어  
피노키오 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아제 개그 하지 말고  
아이를 만들자  
공부해라 공부해라  
교육으로 향하네  
우리의 공부는 국가와 시장으로  
칼보 조항과 그랜트 백 조항으로  
칼보 조항은 국가의 횡포  
그랜트 백 조항은 가진 자의 탐욕  
어찌 사인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칼을 들고 유치산업을 지키자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같등하고  
 세상은 지적 재산권 시대  
 새로운 창작 기술은 형님에게  
 독점적 그랜트 백 조항은  
 불공정거래로 규제 받네  
 닳고 닳은 법꾸라지들은  
 보일러 플레이트 조항으로  
 우리는 씬밥집  
 관할 법원 중재 합의  
 준거법을 정하자  
 닳고 닳은 법꾸라지들은  
 기봉스(Gibbons)와 행정협정으로  
 주는 당구장의 짠 100점  
 그러나 싱거운  
 기봉스를 이기지 못하고  
 오그덴(Ogden)은 어 저는 뉴욕주  
 큰 세상 땡인데요  
 조약은 당구장의 짠 200점  
 그러나 싱거운  
 행정협정도 합헌이고  
 이란협상은 지켜야 할 법  
 나프타 WTO 잘 돌아가는데요  
 스테이트인지  
 네이션 스테이트인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지  
 국가란 영어들은 헛갈리고  
 13개 주는 미국인지 국제사회인지  
 200년 넘은 지금에도  
 50개 주는 국제사회  
 같은 잔재가 남아  
 메이저 리그는 월드 시리즈  
 헌법 제 1조 10항  
 연방 시스템과  
 주 정부간 협정은

편법적 조약 조항  
상원의원들은 외국에 편지를 쓰고  
행정협정에 미국은 책임없다  
대통령은 머쓱해지고  
우리는 행정협정이 법인지 아닌지  
국제법인지 국내법인지  
미국은 야누스  
주세붕이 되었다  
기대승이 되었다  
칼보처럼 국가는  
주인이고 힘이다  
주세붕이 되어  
국제법인지 국내법인지  
좀 불명확해도 붕 뜨고  
국제사회는 기가 세야 한다  
기대승이 되어  
기광을 부리고  
대승의 트로피를  
교수는 야누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프로이드가 되었다  
피아제가 되었다  
가르치는 직업인이 되었다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31. • 월 스트리트와 담터 •

부제: 서인석과 정애리

아침의 서인석은  
서인처럼 대리석처럼  
로마로 법으로  
정의와 공정을 생각나게 하네  
담터의 쌍화차와 함께  
느물린에서 도련님으로  
우리가 무슨 돼지냐 향의하듯이  
쌍처럼 각이 지고  
로마의 조각상 처럼 되어  
공정과 화합을 향하는  
정애리의 정서가 되네  
현재 진행형은 우리의 힘감  
보는 여자형 힘감 봉이 되고  
바는 남자형 힘감 방이되어  
우리는 대봉을 그리고  
빅뱅을 사모하네  
한글은 정인지  
한자는 최만리  
우리는 구두 소통  
언문이 되어  
사람간 정을 인지하고  
한자는 최만리  
우리는 서면 소통  
한자어가 되어  
쓰여진 한자어들은  
만리에 퍼지네  
소통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새로운 시대 말스는  
여전히 이상를 향하고 보편주의로  
소통은 왕과 귀족을 떨게 하고

한글창제는 정치적 의미를 향하네  
 밀은 수 많은 미물들  
 밀고 또 밀고  
 수 많은 미물들의 본부는 일본  
 세종의 밀본은  
 아녀자까지 민주주의로  
 전통의 밀본은  
 사대부 중심 귀족주의로  
 우리의 우상들  
 칸트는 합리론 보편주의  
 이상은 국제헌법주의로  
 해럴드 고는 경험론 보편주의  
 다양한 방식의  
 국가간 합의를 인정하자  
 트라이브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  
 이름처럼 미국부족  
 로렌스 이름처럼  
 법의 눈이 되고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되어  
 미국 헌법은 부르조아지 헌법  
 대통령이 새 시대 왕이라면  
 상원 동의를 얻어라  
 애커맨은 애가 큰 학자  
 해럴드 고처럼  
 이상을 향하고  
 칸트처럼 국제헌법주의로  
 우리는 소통  
 학자들은 다투고  
 사람들은 생각하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자는 낮처럼 험악한 느낌  
 벼는 벽이 되고

아는 악이 되네  
월 스트리트는  
익은 벼들의 생각들  
담터가 되어 도련님으로  
쌍으로 화합으로  
선은 사막 같은 가뭄 속  
착한 사람이지만  
가시 많은 선인장  
악은 험한 세상 속  
나쁜 아이지만  
진실된 음악 동호인  
선이 악을 이기는 때야  
악이 선을 이기는 때군  
세상은 선과 악의 변주곡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정의와 공정을 향하는  
끈질긴 아이가 되어  
어둡고 지옥 같은 세상  
자신의 생각들을 모아 놓고  
음악은 끈질긴  
아이들의 즐거움  
쌍화차와 함께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아우들의 명상록으로

32. • 동기들의 추억 •

부제: 한문철 김관기 국민수 최재경의 아침

의인은 공무원으로  
박봉에 누가?  
안정된 생활 좋잖아요  
우리는 어공 늘공  
친구처럼 다정하네  
천명관은 천명이 관이라네  
신림동 고시원 황금추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공무원으로 일생을  
늘공이 되고  
김병관은 선생들 병  
콩클링처럼 공직을  
사모하는 선생들  
학생들 가르치던  
아카데미 가상 현실은  
고관 대작 어공이 되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는 한자 문화권  
한문철처럼 한자로 철이 들고  
김관기처럼 관기를 그려 보고  
국민수처럼 공소관이 되어  
국민을 대표하고 수를 찾네  
늘공들은 고시원에서  
김철수 권영성으로  
철이 들어라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세상은 영어 문화권  
우리는 권력을 공부하고  
영어는 별이 되네  
어공들은 도서관에서

조영남 그래암 목사로  
우리는 남자다  
세상은 영어 문화권  
영어책을 펴들고  
그래 지식인의 삶  
지식인의 삶은 조디악과 지킬 박사  
죽인다 지킬 박사  
자 제 아래는 그거 짐승 이드예요  
하이드가 되고 하극상도 불사하네  
이른 나이에 박사가 되어  
연쇄 살인마 조디악이 되네  
면장이라도는 조지 워싱턴으로  
자 저는 조지 일찍 깨닫고  
저는 찢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공직은 조지 워싱턴으로  
기나긴 인생살이  
함께 가며 아웅 다웅  
천명관과 김병관  
김철수와 권영성  
애커맨과 트라이브  
조영남과 그래암  
최단비와 최재경  
사막 같은 인생살이  
우리는 최단비와  
최재경이 되어  
잠시 단비가 되고  
잠시 경사 났네 경사 났어



33. • 책과 인터넷 혁명 •

부제: 정다운 이름들

우리의 많은 시간들  
이제는 책이 아니고  
애플폰과 함께  
인터넷은 말 그대로  
혁명과 같고  
우리는 아침부터  
인터넷 포탈 속으로  
정치가의 문화전쟁은  
오른쪽 왼쪽  
법률가의 문화전쟁은  
제정법과 판례법  
판례법은 실용주의  
제정법은 합리주의  
판례법은 상식과 보통인  
제정법은 추리와 전문가  
판례법은 각지에 흩어진 법관  
제정법은 장군과 책 하나로  
나폴레옹과 포탈리는  
근대 5법의 시작  
정치적 통일은 법의 통일로  
나폴레옹 나는 경험과  
지성의 풀대다  
교통방송 채널 서울을 넘어  
폴라리스 채널처럼  
국가로 유럽의 통합으로  
포탈리 나는 포탈처럼 책처럼  
흩어진 법을 한 곳에  
제정법의 전통은  
파리의 개선문 콩코드 광장으로  
뉴욕의 유엔본부로

광주의 한전 대학처럼  
우리는 전기를 느끼고  
카르테지안이 되어  
까르르 웃는 지성이 되네  
나폴레옹은 한국의 오세훈  
큰 세상 장군이 되어  
세상의 칭송을  
포탈리는 한국의 원세훈  
똑똑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훈작을  
아침의 우리는 한인수  
오세훈이 되고 싶고  
원세훈을 꿈꾸네  
자유의 전도사  
나폴레옹도 아닌 것이  
게르만 세상 히틀러도 아닌 것이  
한인의 힘과 재능을  
만방에 퍼트리자  
너털 웃음의 한인수는  
한국인의 우수한 유전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방법을 찾네  
서가 속 대한민국 법전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  
이제는 인터넷 포탈로  
포털은 책을 대체하고  
우리의 일상이 되네  
포탈이 남긴 이득은 포탈리  
독과점 인터넷 기업에 과징금  
정부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구글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도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질서로  
여름을 향하는 우리들  
녹색의 푸르름인가?

김연경처럼 늠름해지고  
천하장사의 추억은  
늠름한 우리들  
씨름을 좋아하고  
정다운 이름들은  
늠름한 우리의 이성  
수 많은 폐친들과 이웃들  
우리는 인터넷 혁명으로  
해럴드 고로 논문으로  
김필립으로 동영상 강의로  
신나라 하루가 되어  
책상머리에서 이치를 구하네

34. • 국제법과 헌법 •

부제: 내 인생을 돌려다오

국제법은 형제  
국제사회는 수평적 사회  
흔내 줄 정부가 없다네  
형제들은 약속하고  
상호주의는 형제의 원리  
선택조항의 유보는  
똑같이 상대국도  
주장할 수 있다  
도발에는 상응하는  
처절한 응징  
북한은 치를 떠네  
국제사회는 아담과 이브  
칸트 같은 자유국가  
도덕국가는 요원하고  
낙원에서 쫓겨나 험한 세상으로  
국제법은 의사주의 주권 평등  
국제사회는 아벨과 카인  
헤겔 같은 절대선  
절대 이성이 되어  
남조선을 해방하자  
우리 통합은 천명이다  
국제정치는 현실주의 세력균형  
국제사회는 박수홍과 우리들  
큰 세상에 박수를 보내고  
프랑으로 다 값있다  
금 기준으로 값아라  
프랑스가 되고  
브라질이 되어  
금으로 프랑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네

국내사회는 헌법국가  
미국은 헌법국가의 원조  
사극 매니아는 한국 할아버지  
현실의 삶은 미국 할아버지  
정부를 구성하자  
우리는 리퍼브릭(Republic)  
사는 싫다 공 대로 정부를  
왕가 대신에 시민의 뜻을  
왕 대신에 대통령을  
거리만 있는게 아니다  
주거는 신성하고  
법은 공적인 문제나  
우리는 리퍼브릭(Republic)  
민주주의도 문제일 수 있다  
시민의 뜻은 사생활의 자유  
우리는 민주 공화국  
(Republican democracy)이 되네  
국내사회는 수직적 사회  
헌법은 할아버지  
정부는 아버지  
우리는 화합과 낙원을 그리네  
애커맨(Ackerman)은  
한국의 권영성  
경기하는 애인가  
경기고 출신인가  
이름처럼 그게 커  
역시나 헌법적 계기  
새로운 상위법 제정 방식  
뱅뱅 자코뱅  
데카르트처럼  
크게 되어 까르르  
트라이브(Tribe)는  
한국의 김철수  
민족사관 출신인가

이름처럼 민족으로  
역시나 우리 살아온 인생  
그 많은 판례와 법문은 어떡하고  
법은 정치나 혁명이 아니다  
해석법학의 전통을 지키자  
롱롱 지롱드  
비코처럼 비에 젖어 코를 만지네  
새로운 세대 헌법은  
허영과 김병록  
허영은 김병록을 가르치고  
김병록은 교수직의 모범이 되네  
내 인생을 돌려다오  
트라이브는 헌법 인생  
애커맨은 조심하라  
이한기 선생은 국제법 인생  
누구는 조심해라  
박수홍은 큰 세상  
박수 받는 인생  
집안 사람들은 조심해라  
김병록은 월급 받는 교수 인생  
허영이라고 의심하지 마라  
우리들은 반려를 찾아  
인생을 돌아 보고  
우리는 친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제도 이웃들도  
선생과 학생들도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세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35. • 삼부회와 교회의 대분열 •

부제: 흠수저 금수저

우리는 교회  
모여서 경배하고  
형제 자매간 사랑을  
하느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  
노아는 모범생 신도  
방주는 위기시 교회  
고대 강국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대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 마을은  
법과 함께 번영하네  
하느님 왕국 유대와 이스라엘  
바빌로니아로 인하여  
수천년의 유량과 핍박이 시작 되고  
님로드(Nimrod)는 여문 우리 님  
님은 회초리를 들고  
바벨탑의 전설은  
언어의 혼란과 인류의 파멸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바빌로니아  
법과 문명이 융성하고  
어떤 형님들 같지 않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프랑스왕 필립 4세  
법을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라  
로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급기야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법만 있는게 아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인지와 학문은 융성하네  
프랑스는 푸르른 랑랑 30세  
아비뇽의 아이들은  
날고 농농거리네  
로마는 달리는 법  
안정된 우리들은 보니  
문제가 있다 파자 키를 찾는  
우리 법률가 친구들  
빼곡한 변론조서 판결문들은  
마치 팔을 휘두르는  
보니파키우스 교황 같고  
물과 언어의 혼란에서  
시작한 세상의 우리들  
로마에서 공동체와 법으로  
유튜브 속 서정욱  
변호사 같이 되고  
아비뇽에서 다양한 학문 분과로  
캠퍼스의 우리들은  
교촌 치킨을 즐기고  
우리의 안락은 황교안 이름 같네  
하느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대분열로  
우리의 머리털은 갈리고  
세속의 가르침은  
필립 4세의 삼부회  
우리의 정치와 복락은 갈리네  
기도와 함께 시작한 아침  
인간세상은 아직도  
흙수저 금수저

36. • 가상현실의 우두머리 •

부제: 알리와 바클레이

캐시어스 클레이는  
무하마드 알리  
우리는 현찰이 되고  
우리를 캐세요 진흙같이  
끈질기고 질척 질척  
진흙탕 같이 벗어나기 힘든 것이  
개인 경제 우리들 가계부  
은행들은 좋아하네  
바클레이는 영국 은행  
클레이페이는 비트코인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  
국민의 이익을 향하여야 할 국회의원  
변호사 은행은 싫다  
바클레이를 외면하고  
클레이 페이로  
학교는 순수한 사람들  
우리의 낮 시간은  
법이에요 수학이에요  
세상은 잡종과 파워  
정치가와 돈은 모든걸 삼키고  
정치가들은 우리는 섞는다  
위믹스가 되고  
재벌들은 콩글로머릿  
킹콩처럼 되어 가슴을 광광  
골목 상권도 마다 않네  
위대한 프로들은 위믹스인가  
프로방스는 프로들의 큰 세상  
태릉 선수촌 같이  
종목 따라 학교는  
학위에 목매달던 청춘 시절

학과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던 장년 시절  
이제는 거리 킹  
옆으로 걷는 꽃게  
나는 왕이로소이다  
유니버시티 프로페서가 되어  
가상현실의 우두머리  
가상현실의 정치가  
가상현실의 재벌  
마이클 샌달은 산과 달  
광주의 산수동인가  
정의를 알아라 철이 들어라  
세상과 정의를 가르치네  
칼 막스는 막 뒤의 칼  
막 뒤의 진실을 알아라  
허위의식을 떨쳐라  
칼을 들어라  
미셸 푸코는 미국 여자로  
미국을 보아라 무슨 혁명이나  
우리는 지식으로 비판으로  
푸쫓간처럼 되어 코나 풀자  
알벗 반두라는  
우리는 반쪽이지만  
머리를 크게 하자 라라라  
심리는 우리의 지성  
알벗이 되어 학자들은 공부하네  
가상현실의 우두머리들은  
공의를 외치고  
현실정치의 우두머리는  
떼부자를 그리네  
우리는 섞는다 정치가와 위믹스  
그런데 이거 딱 정치가들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닌가요?  
알리와 클레이의 진리는

벗어 날 수 없는 인간의 굴레  
알리의 혼란은  
하이드에서 바클레이로  
클레이 페이의 사고는  
위믹스에서 바클레이로  
위대한 학자나 정치가나  
우리의 아래는  
움직이는 하이드  
우리의 위는  
말고기도 마다 앓는 지킬 박사  
알고 싶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되고  
질긴 진흙 같은 인생  
캐시어스 클레이가 되네

37. • 지식인들과 부르조아지 •

부제: 한국호와 태영호

싸움은 인간의 본성  
자연과 사회에 깃든  
하느님의 섭리  
종족 보존을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에서 시작하여  
여당이다 야당이다  
원고다 피고다  
부르조아지다 프롤레타리아다  
문화전쟁이다  
이념전쟁이다  
싸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가 되어  
급기야 김의 전쟁까지  
교수와 학자들은 아카데미  
아비뇽이 되어  
아이처럼 나르는 용  
통령 장관 총수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도롱뇽  
교수들의 조언을 흠치고  
세상에 구현해 보려는 용  
세인들은 아비투스가 되고  
멜라투스가 되어  
세상은 투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부를 좋아하고 일찌기 세상을 안다  
그래 부자 뒤에는 뭐가 있냐?  
부르조아지는 부르뒤어로  
맑스의 경제 정치 투쟁은  
문화와 습속 투쟁으로  
부르뒤어로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인들은 회색분자에서  
문화인으로 문화비평가로  
암스텔담은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 모임 같고  
말하고 소통하여  
지식은 아비투스처럼 담이 되네  
황장엽은 모스크바의 지성  
모스 부호 같기도 하고  
주름살 할머니 같기도 한 도시  
큰 철봉 같은 바가 되고  
태영호는 세상의 지성  
런던의 외교관  
미 의회에서 증언하고  
태영건설 처럼 바다를 누비네  
태영호와 황장엽  
아비투스와 멜라투스의 갈등  
아비투스는 멜라투스가 되어  
남한의 멜로 드라마에서 투쟁하네  
김일성 대학 총장 황가의  
긴 잎사귀는 암살의 위협으로  
한국호의 혼란은 태영호의 침몰로  
태영건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아카데미와 세속사회  
부르뒤에와 부르조아지  
아비투스와 멜라투스  
아비농과 도롱농  
세상은 요지경  
우리는 싸움없는 생명이 없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애니투스가 되어  
우리는 또 개념을 향하여  
다시 또 좌다 우다  
공천으로 선거로

38. • 월요일과 월급 봉투 •

부제: 국제법과 크로스 컨트리

우리는 잠수왕  
물에 머리를 박고  
누가 오래 견디나  
씨름 같고 무산소 운동 같은  
동포들의 하루는  
크로스 컨트리로  
유산소 운동으로  
무산소 운동은  
씨름 같은 국내 사회  
유산소 운동은 크로스  
컨트리 같은 국제사회  
피해자와 침략자는 다르다  
교황의 중립안은 거부되고  
게오르규의 25시인가  
컴퓨터 게임 애포컬립스인가  
막장 같은 전쟁은 끝나지 않네  
젊은 시절 고양이에 홀려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롤 송을 좋아하고  
교황의 축복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던 젊은 시절  
9시 뉴스 단골 손님  
오바마의 영어 멘토에  
멋있다 건배하던 젊은 시절  
이제는 중년이 되어  
지미 카터 나는 알리라  
차들은 불을 켜고  
학생들은 분당의 야탑동인가  
탑을 쌓듯이 밤세워 공부하네  
이른 나이 쌓은 탑은 조지아

지미 카터처럼 케네디처럼  
 다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고  
 이제는 중년이 되어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  
 이름도 남성형 바하라네  
 G선상의 아리아는  
 남자들의 처량한 연대  
 그랑 함께 하고 그랑제꼴  
 같은 위대한 학교  
 헨델은 음악의 어머니  
 이름도 여성형 헨델이라네  
 헨델의 사라방드는 사라 이름 같고  
 인생의 비장함 여자들의 정성  
 방을 드세요 정서는 깊어가네  
 스타 스트립스 군번 같은 기분은  
 사람으로 음양의 파라다이스로  
 젊은 시절 한량은 노년의 지식인  
 박영수가 되어 영어와 수학으로  
 박지원이 되어 노회한 지식인으로  
 찌를 가져라  
 주선과 조정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지미 카터 말은 듣는데  
 교황 말은 안 듣는군  
 주선의 낚시대 찌는 꼼짝 않고  
 대물의 기대는 누가 잠수왕인가로  
 외모만 번드르 내공이 있어야지  
 크로스 컨트리는  
 나라들 씨름을 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중동의 깡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를 가네  
 우크라이나는 피해자  
 이스라엘은 수천년의 울분  
 러시아는 짜르의 패권주의  
 우크라이나는 부속물처럼 보이고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자존심  
모세는 미개한 도망자가 되네  
세상은 말세 노년의 교수는  
    게오르규의 25시로  
    묵시록 아포칼립스로  
    우리는 경건한 시간  
겸허히 하느님의 뜻을 받고  
    최후의 심판에 눈을 감네  
    까르르 웃는 옆방 교수  
    우리는 진시황을 합시다  
    시시하지만 진짜예요  
    달과 달덩이는 우리의 복락  
월요일은 한 주의 생산을 생각하고  
월급 봉투는 한 달의 소비를 돌아 보네  
    우리는 교수 복지회로  
    학교 생협으로  
월요일의 국제법 시간은  
    서양사 외교사로  
    국가간 권리와 의무로  
    국가간 씨름이 되었다  
    크로스 컨트리가 되었다

39. • 피타고라스와 히포크라테스 •

부제: 서유석과 독도의 아침

독도는 우리 땅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수우미양가 철이 든 김수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명석한 우리의 서유석  
독도는 지성의 상징  
우리는 도 닦는 달마 대사  
프레비히어 사원은 태국 땅  
프레비히어는 지성의 상징  
여기에서 풀고 나래를 펴자  
캄보디아와 태국은 아웅 다웅  
지도는 오류를 담아  
동해는 일본해 독도는 일본땅  
프레비히어는 캄보디아 땅  
우리는 똑순이 독도는 한국땅  
태국은 착오에 빠지고  
조약은 무효가 아니라네(朝鮮)  
새로운 태국 총리는 피타  
피가 탄다 우리의 이탄희 같고  
열정과 문제 의식은  
탁월한 신발 탁신마저 제압하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  
피타 새로운 태국 총리  
피자를 즐기던 똥덩이는 멋적고  
히포 그는 무서운 적  
하느님이 보낸 저승사자는  
의학의 시작이 되네  
피타는 피타고라스로  
열정은 외롭게 라라라  
히포는 히포크라테스로

인생은 끊임없는  
유기체의 성장  
유기체의 재생산은 둔해지고  
우리는 겸허히 유한한  
시간을 받아 들이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  
소같은 아침은 소크라테스로

40. • 카사노바와 쉬락 총리 •

부제: 벤티 히긴스의 긴 하루

아담과 이브 같고  
영화 남과 여 주제곡 같던 시간들  
락원에서 쫓겨난 우리는 죄인들  
원죄설은 천태만상의 인간사로  
차알스 왕세자는  
맛이 간 남자들  
세기의 결혼식을 좋아하고  
차는 힘차고 알부자가 되어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 같은 한 평생  
카사노바는 불쌍한 남자들  
배짱이 같고 샷간 쓴 한량처럼 되어  
차는 죽고 방망이는  
뚱물 속에 빠져 있네  
쉬락 총리는 남자가 아닌 우리들  
여자 같은 즐거움  
프랑스판 그녀의 웃음소리뿐  
여자들은 부를 까고  
깐부치킨을 즐기네  
여자들은 세부 공항  
부는 힘이 다 부는 세다  
동남아로 필리핀으로  
팔마스 섬은 팔과 말들의 천국  
파리조약으로 미국에 양도되었다  
필리핀은 애초에 권리가 없다네  
없는 권리를 어떻게 양도하나요  
커다란 미국과 필리핀은 병찌고  
짤순이 네덜란드는 크크크  
너덜 너덜과 쉬락은 우리의 평화  
우리들은 여자 따라 사는 룸펜들

터키가 되고 필리핀이 되네  
터키의 에르도안이 되어  
정부구조를 그려보고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되어  
마약을 소탕하자  
락원을 잃은 추방자들은  
추노처럼 되어  
하느님에게 쫓기고  
어담과 이브의 무드는 저 멀리  
무드를 잃어버린 사람  
무드를 간직하고 탈을 쓴 사람  
탈무드 같은 세속 얘기가 되고  
두꺼운 국제법 교재  
딱딱한 판결문처럼 되어  
성경시대는 저 멀리  
세속의 율법사 랍비가 되네  
천태만상의 우리들은  
원죄를 탕감받기 위하여  
다시 또 긴 일상으로  
그는 길다  
친구티가 나나요  
벗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로  
그녀는 길다  
원죄와 슬픔 같나요  
루쓰 깐스 버그의  
판례법으로  
진짜 기네요  
NBA 플레이 오프로



41. • 보팔과 무서운 여성들 •

부제: 한국 전력과 바르셀로나 전력

무서운 여성들의 시대  
바르게 하자 바르셀로나로  
파워 여성이 되자 한전으로  
유리천장은 무너지고  
사회 곳곳 여성들의 약진  
보팔은 여성들의 팔  
화학 물질을 담고 있는 이무기  
여성들의 지성과 노동  
로스쿨은 반 이상이 여성이고  
유출된 화학 물질은 치명적이네  
최단비의 다사로움은 저멀리  
보팔의 위력 앞에  
남성들은 박명수로  
박자 명석하게  
보팔을 조심하자  
활명수를 찾네  
보팔의 위력 앞에  
우리는 가난과 비움을 떠올리고  
빈티지는 비움의 미학  
햇살과 가난 속에 핀 수 많은 잡동사니  
명품 포두주  
명세빈은 밝은 세상 가난  
빈티지가 되고 비움의 미학이 되네  
남성은 의인들  
우리는 흥길동이 되어  
큰 세상 길 위의 의인들  
활빈당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네  
우리는 길용우  
길 위의 용이 된 친구들

사장님과 정치가들은  
사람을 쓰고 덕이 되네  
우리는 오벨리스크  
큰 세상 정의의 별이 되고  
감옥도 위험도 달게 받네  
우리는 오라클  
큰 세상과 더불어 라라라  
크게 되리라  
의인으로 살리라 맹세하네  
여성은 이무기에서 가계부로  
보팔은 바르셀로나를 향하고  
캐나다는 포장된 의인들  
벨기에는 실제인 가계부들  
바르셀로나 전력회사는 심판대에  
법인은 법인이고  
주주는 주주다  
가계부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네  
법인은 자본주의의 총아  
우리는 라라라  
우리는 슈가맨  
노래 하는 주주 클럽  
법인은 남성형  
세상의 용들  
세상의 의인들  
주주는 여성형  
세상의 이무기들  
세상의 가계부들

42. • 아피스와 아데나워 •

부제: 김수로와 김수로왕

아침의 운기는 동명사  
사람들의 일상은 계속 되네  
와하는 사람들은 왕이 되고  
아내의 처 자는  
처와 함께로 청으로  
좋다의 호 자는  
호와 함께로 흥으로  
우리는 청실 흥실  
우리는 별당아씨 박씨 부인전  
곱게 엮어 행복을 그리네  
왕이 못된 연산은 연산군으로  
임은 큰 세상 좋은 것을 생각하네  
왕은 일부다처제  
임사흥은 채청사 채흥사  
연산군은 주인의 그릇이 아니다  
스님같지만 주인을 잘하네  
중중으로 바뀌  
서경과 개경은 경사났네  
서쪽처럼 일어나세요  
묘한 아내 묘청은 진보당  
뭘 더 일어서 돈많은 우리들  
개성공단 처럼 도와 줍시다  
부를 심자 김부식은 보수당  
이도 저도 아니다  
우리들은 김씨다 김보당  
김수로는 민주주의  
김수로왕은 와와와  
연산군은 주인이 아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네  
도서관의 애처럼 되어

현고학생 신위부군  
아이들처럼 양양불락  
안광이 지배를 철하네  
임사홍은 아피스  
김자점은 아데나워  
아피스는 만년을 간다는 만년필  
김자점은 자 점찍자  
누가 독일 수상인가?  
독일판 조국사태인가?  
커다란 아이가 되어  
나의 적은 나다  
자기와의 싸움  
아데나워가 되네  
정치 경제를 내팽개친 연산은  
산 같이 큰 경제 달밤의 가계부  
월산대군까지 내팽개치고  
우리는 민주주의  
아피스와 아데나워로  
우리는 왕의 정서  
김수로와 김수로왕으로  
그런데 김수로왕은  
거기에 점이 있다던데  
김자점 이름의  
옆 방 교수 말에 실소하네

43. • 서양 멋쟁이와 한국 정치 •

부제: 아데라와 데카당의 추억

서양 멋쟁이들은  
필리스틴과 보헤미안  
필립왕이 되고 그룹 쿤이 되네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하고  
인터넷에는 조각 조각 글들이  
조각 조각 동영상  
작은 한국은  
마음의 구심점이라도  
우리는 박사 정치  
이승만은 대통령인지  
이승만 박사인지  
이승만에서 시작한  
남한의 민주주의는  
박사 정치로 이어지고  
조병옥 정택상  
윤보선은 자유당  
한 때를 주름잡네  
박정희는 바른 박사로  
박근혜는 박사들을 헤량하고  
친구가 되네  
필립왕에서 시작한  
아데라와 데카당은 이제 그만  
우리도 서양처럼  
자본주의다 돈과 출세다  
박근혜와 유승민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정미경은 윤석렬  
보수의 정서가 되어  
경사 났네 경사 났네  
미국으로 향하네

조봉암은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 대중은 된다  
 김대중은 진보 정치의 시작  
 청포도 사랑 같이 살다 보니  
 걸레가 되었다네  
 신중한 이미지의 카리스마 정청래  
 부부 화합의 상징이에요  
 한국의 케니 로저스인가  
 털보 유튜버는 왜 털을 안 깎나?  
 조국은 조선의 철종 같은  
 철이 들었다는 대학 선생  
 배우는 사람 학인이라는 대학 선생  
 세도 정치의 노리개가 되었나?  
 어찌 잡혀가 팔자에 없는 왕이 되었나  
 왕이 단명했다  
 여왕이라도 수호하자  
 조국은 잡혀가도  
 정경심은 안된다  
 정경심 법원 출두 씩은  
 좌우 정치의 클라이 맥스가 되고  
 그룹 퀸의 영화 속  
 동료 가수를 편찬하는 대사 장면  
 대학원 그만 둔걸  
 후회하는 동료에게  
 그놈의 인용도 안되는 학위 논문  
 퀸 가수로 박수 받는걸  
 달갑게 알고 살아야지  
 요즈음 인물들은  
 박대출 박광온 박주아 박주민  
 우리는 은행대출보다  
 박대출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박사들  
 타락한 박사 정치는 이제 그만  
 아데라와 데카당은 그만 농성하라

광주의 농성 광장은 조용하고  
이 집을 틀자 이집트는 이제 그만  
나이 먹어 지리를 좋아하고  
나이지리아가 되어  
수 많은 집들을 아네  
우리는 그룹 쿤 똑똑이 처럼  
지식 산업으로 자본주의로  
대학이 아데라?  
이제 아이들 대학이 아니다  
대학이 데카당?  
대학은 큰 차도  
공군 1호기도 아니다  
학교는 교수가 주인  
오늘은 교수의 노동일  
강의실의 교수들은  
한 떨기 청초한 물망초  
법은 이렇다 수학은 이렇다  
주제에 충성하고  
원리 탐구회가 되어  
뷰로크러시는 그게 그거  
군수나 장관이나  
탐관오리인건 똑 같고  
진짜 전쟁이나  
게임 앱 전쟁이나  
원리는 똑 같다네  
한국은 수백년 뒤 망한다는  
외국 대학 교수 말에  
반신 반의 하고  
우리들은 입을 모아  
학생 모집은 어떻게 되나요?

44. • 탈무드와 하회탈 •

부제: 이성계와 조선대

제비는 우리의 육체  
연미복을 입고 몸매를 뽐내네  
접시꽃은 우리의 영혼  
묘소에는 오래 된 꽃들이  
인생은 정답다  
조영남의 제비 노래에 즐겁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  
아픈 사랑은 접시꽃 당신  
시 귀절에 삶의 진실을 느끼네  
우리는 제비 우리는 접시꽃  
지성은 현실 참여로  
양가주망은 지식인의 양심  
접시꽃은 우리의 선생들  
실락원의 아픈 사랑은  
지식인의 고뇌로  
접시꽃 당신처럼  
세상의 이치로  
성경이나 무드보다  
탈무드 같은 책과 논문으로  
하회탈은 정치가 머리 올린 어른  
누가 누가 아래를 많이 모았나  
웃는 어른 김새는 어른  
우리는 선거판  
하회탈은 정치가의 기본  
총알이 뚫는 방탄복인가  
처용무를 추는 큰 그릇인가  
하회탈은 벗겨지고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하네  
길게 합시다 서장훈이 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을 공부합시다

후배 서용이도 떠오르고  
 우리는 또 약 올리네  
 친구들은 나는 맛있다  
 나는 맛있다  
 적들은 병신아 병신아  
 우리는 맛을 찾아 맛집으로  
 우리는 격분과 멸시를 찾아  
 씨름판으로  
 여자는 맛 대가리  
 젊었을 때는 정치를 좋아하고  
 3관왕은 여자 밥으로 전략하네  
 나이 들어 교수들이 되었네  
 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은 뭐하나  
 이제는 법대 여 교수  
 밥으로 전략하네  
 우리는 이성을 모아 여자 이성계로  
 단순한 코리아는 조선이 되고  
 암호 화폐도 이성 조직인가요?  
 투기다 투자다 시끄럽고  
 암호 화폐에 계돈 부었다는  
 김모는 이모가 아니고  
 우리의 선량  
 이성만은 이성만으로  
 이성은 뿌리처럼 이정근으로  
 감성은 어디 갔나 완전하지 않고  
 이성윤은 이성의 윤기  
 언제적 돈이나 데카당이 되네  
 조선대에서 바라 본 한국 사회  
 이성계의 조선은 천태만상  
 우리는 처럼회  
 누구처럼 되자  
 제비처럼? 접시꽃 당신처럼?  
 알고 보니 지도 교수와 제자들  
 이석기 정의당

강성희가 회원이 되었다네  
이제 진짜 좌파인가?

45. • 일요일의 휴게실 •

부제: 정동영과 올리브 영

대모산의 정기는 우리의 생명  
    커다란 어머니 품은  
소모성 일상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는 올리네  
    분당의 뷰티 샵  
    올리브 영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 보고  
    우리는 고종 황제  
동향의 정치인 정동영과  
    광화문 연가를 들으며  
    함께 걷는 정동 길  
국모 명성왕후는 시해되고  
    우리는 아관 파천  
    아이는 죽고 하늘은 없네  
    올리브 영은 노래하네  
    멜로디는 아브라 카다브라  
    아이는 브라보  
나는 자동차다 차들은 브라보  
    정동영은 노래하네  
    멜로디는 장 프랑수와  
    모리스의 모나코  
대한민국과 국모는 부활하고  
    우리는 애국으로 모로코로  
    우리는 젊은 그대  
    YMCA 노래 속 영맨  
우리는 영스타운의 강철 공장  
    트루만의 실패에도  
미국과 함께 북한을 격퇴하고  
    이제는 냉전 시대 데자뷰  
    정동영 선배의 특강은

미중 갈등 속 한반도의 나아갈 길  
일본의 불법행위  
새로운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자  
대구 지방법원  
미군정기 미군의  
불법행위 사건 처럼  
왜 저건 3자 변제가 되고  
왜 이건 3자 변제가 안 되나요  
미군은 아브라 카다브라  
일본은 윤미향과 정의연  
미군은 따질 것 없다  
일본은 따져 보자  
우리는 국모의 부활로  
일요일의 안식을 즐기고  
모나코 노래와 함께  
모로코를 향하네

46. • 주술을 향하는 월요일 아침 •

부제: 백악관과 프로테고 맥시마

데카당의 아이들은 이제 그만  
대학교와 세상은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박찬대가 되고 박찬주가 되네  
엄마와 함께 짠 아마데우스  
착한척 아이 필립왕은 이제 그만  
바보와 타락의 시간은 막을 내리고  
우리는 백자기의 예술로  
세상의 현실로  
전기가 온다 연애질로  
반지의 제왕을 즐기고  
베이지만 토해 보자  
운명 교향곡을 듣고  
마마 도와주세요 에이즈  
그룹 퀸즈가 오네  
작은 나라의 구심점이던  
박사정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고  
프로들은 축구 선수  
박사들은 가녀린 성량팔이 소녀  
우리의 대학교는 박찬대로  
우리의 세상은 박찬주로  
프로테고 맥시마  
프로들은 주술과 함께  
자기만의 주술로  
자기만의 큰 세상을 그리네  
정치는 현실 정치  
조각 조각 시간들로  
조각 조각 사설들로  
조각 조각 책들로 논문으로

조각 조각 동영상까지  
 프로테고 맥시마는 해리 포터  
 해 아래 전령사  
 해 아래 그룹 퀸즈  
 최보식 같이 송평인 같이  
 조각 조각 신의 뜻을  
 전달하는 마법사  
 프로테고 맥시마는  
 사람들 전문가들  
 정치 같은 만고 땡이 아니고  
 와와 청초한 부부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 같이 모든걸 삼킨다는  
 하얀 악마도 아니네  
 교수의 아침은  
 우리는 또 방어하자  
 학위 논문 디펜스  
 박사는 폼으로 땡나?  
 우리는 마냥 성량팔이  
 소녀가 아니고  
 교수직 훈련으로  
 아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 아니야  
 수업을 준비하는 월요일 아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주술과 헌법 주술  
 국제법 주술은  
 넓은 세상의 주인 고흥주  
 세계화로 국제사회로  
 헌법 주술은 애커맨  
 국가의 주인 큰 아이로  
 헌법 주술은 트라이브  
 동쪽으로 조상으로  
 아 이제 신국제협정은  
 헌법 변천이래도  
 아니 우리는 문리를

무시해선 안된다  
학자들과 논문들은  
시시비비로  
프로테고 맥시마  
정치가들은 자신을 방어하네  
법은 정치의 시녀  
법치주의는 죽었다  
우리는 위기의 양심범일뿐  
우리는 우리의 주술이 있다

47.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

부제: 김현희와 동명이인

고문헌 선배는 재미 있네  
장수가 소원인 우리들  
제주도의 동명이인  
할아버지와 오붓한  
식사 장면은  
인간애 마저 불러 일으키고  
Balfour v. Balfour  
남편과 아내는 합의하네  
의사주의 법학은  
로마법과 근대법의 기본  
가족간 합의는 계약이 아니고  
우리는 육손이  
신체적 특징은  
이승의 각개 투쟁  
우리는 이부진  
나는 진짜 부자래도  
빈부의 현실은 금수저 흙수저  
젊음은 우리의 태양  
신성일의 맨발의 청춘  
기타하나 동전 한 잎뿐  
박대출이나 은행대출이나  
개업의 꿈을 접고  
박사 선배의 대출을 받아  
책을 향하네  
박대출의 젊은 시절은 가고  
이병철과 박두을로  
벼처럼 겸허한 한 평생  
긴 인생은 병이 되고 철이 드네  
박두을은 을지문덕의 부활  
갑질 세상에서 박사 머리가 되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을 비추네  
 글의 덕은 신묘하고  
 칼기 폭파범 김현희  
 김현희는 수령에 충성  
 수 많은 무고한 이름들아  
 아침 나절 이름의 유희는  
 김씨 성의 희야  
 구창모의 희나리  
 세종대왕은 분노하고  
 칼기 사고는 우리를 전율케 하네  
 어떤 김갑식이냐?  
 몇년생 김을동이래?  
 사고마다 동명이인은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선현들의 유해는 우리의 정기  
 광주 민주화 성지는 처연하고  
 비목 노래와 함께  
 열사들을 추모하네  
 우리들은 학자 인생  
 제사상 앞에는  
 현고학생 신위부군  
 쓸쓸한 책과 논문들이 모여  
 어느 외국 웹사이트  
 초라한 인플루언서 리스트  
 노 학자는 자신의 영문 이름을 쳐 넣고  
 먼 훗날 뼈다귀 같은 기분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서 눈만 뼈끔 뼈끔  
 이름의 유희는 엄숙으로  
 동명이인과 김현희의 아침은  
 경건해지네  
 발이 네개 같고 김현희 같은  
 아침 시간 아내와의 유희  
 한국인들의 해학과

이웃간 정은 엄숙으로  
이름의 유희는 이제 그만  
칼기를 사랑하자  
높은 글 고문으로  
제주도의 두 고문헌  
우리는 겸허히  
인생의 시작 신혼여행으로  
노년의 현실로

48. • 덴마크와 그린란드 •

부제: 내 맘대로 하루

우리는 동쪽의 밝음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성왕  
우리는 박동명  
부처님 손바닥 처럼 흰하고  
우리는 선하다 박동선이 되어  
박동선 게이트  
숨 좀 쉬자 박동선 문이라 칭하네  
야야 감탄사는 계속되어 동명사형 양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뉴욕 양키즈 가수 양희은 같은 멋쟁이  
아 좀 야해야 장사가 될 것 아냐  
양재동의 양재들은  
사장님과 장관들의 편잔을 받네  
불쌍한 어린 양들은  
양키 캔들처럼 되어  
야한게 뭐냐 키를 찾네  
해답을 간구하는 촛불들  
우리의 휴게실은 기원  
이세돌과 신진서는 우리의 우상  
바둑의 이치는 돌 같이 세네  
세월이 흘렀으니 신진으로 갈자  
우리의 휴게실은 당구장  
꾸르동과 브롬달은 우리의 우상  
꼬르동은 요리 학교  
꾸르동은 당구의 맛  
브롬달은 보름달 같이 부럽네  
우리는 양처럼 되어 세계화로  
신촌의 대학에는 현대의 정의선  
정의는 선한 것이야  
미국으로 김미화는 옛날이 되고

우리는 한국의 힘 한국화 되자  
 김씨는 강하자 이기자  
 한화의 김승연은 아들의 울분으로  
 깡패인지 정의의 주먹인지  
 우리는 라라라  
 엘에이 아리랑인가  
 라덕연은 덕으로  
 연어 같은 파이낸스로  
 피해자들은 부아 부아  
 넥타이와 양복은 우리의 직장생활  
 키를 찾는 우리들은 양키즈  
 키는 계속 삐질  
 코 역시 계속 집중 킹콩이 되고  
 킹콩 좋아요 호호 홍콩이 되네  
 덴마크와 노르웨이  
 일찍 데어 버린 표식 덴마크  
 노년의 길을 찾는 노르웨이  
 그린랜드는 덴마크 땅  
 유럽판 독도 분쟁  
 독도는 철인의 자유  
 그린랜드는 녹색의 자유  
 녹색 등 앞 내 맘대로 하루  
 야하게 예쁘게 직장의  
 율법은 분발을 요하고  
 우리는 선량한 인재  
 양재가 되고 미스 김 김양이 되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양씨 성으로  
 양키즈 양희은 양재동으로  
 우리의 여가 생활은 김추자  
 김씨 성의 자유로  
 우리는 추 같이 무게 있는 한국인  
 김추자가 되어 당구 TV로 바둑 TV로  
 추자도 흑산도의 밤 시간을 즐기네



49. • 알벗과 버나드 쇼 •

부제: 새악시와 마키아 벨리

우리의 하루는 천태만상의 즐거움  
버나드 쇼를 즐기고  
죽기전에 꼭 봐야할 절경에 감탄하네  
우리의 하루는 힘과 건강  
마치 노동일 이름처럼  
우리는 고된 노동도 마다 않고  
의사 선생님과 알벗이 되네  
공부는 여자들의 관심  
여자들은 바르르 떠네  
새악시 같이 생긴  
공부형 쉬바르쯔  
대법원의 역사 속 사진은  
공부벌레의 이미지 그대로  
돈과 출세는 여자들의 관심  
귀여운 악마 같이  
매부리코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  
경영형 쉬바르쯔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  
사자와 여우의 야누스 그대로  
세상의 쇼는 극작가 대본에서  
버나드 쇼는 세상을 보여 주고  
두 버나드 쉬바르쯔는  
세상의 쇼를 2분 하네  
시간의 흐름은 단순 이분법에서  
예민한 세상 속 전쟁으로  
학자들은 예술인 자유로운 정신  
백지 앞 덩그란히 자신과의 싸움으로  
선배 법학자는  
박사간 전쟁도 예민하다  
그래서 이름이 드워킨인가?

드워킨의 적은 드워킨이다  
어찌 타이틀도 드워킨 온 드워킨인가?  
세상은 메디컬로  
알벗 쉬바이찌 박사는  
그녀와 바이 바이  
오지에서 환자와 함께 똥글 똥글  
우리의 알벗 우리의 힘과 건강  
아침 신문에는 노년의  
체중 소실은 좋지 않다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이름이  
찌라 찌라 쉬바이찌인가?

50. • 원저성과 베르사이유 궁 •

부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사람과 사람들의 아침  
다시 또 하루의 생명이  
혜은이의 독백처럼 굵적 굵적  
우리는 사람 세상은 많은 사람들  
조용필은 공부하는 그대 위대한 탄생  
사람들은 열광하네  
우리는 데카르트  
생각을 바꾸자  
우리는 공부하고  
미분과 적분 무한대를 생각하네  
우리는 비코  
세상을 바꾸자  
평등한 사람들  
만물상과 사람들을 생각하네  
메시는 축구 선수  
법 축구화를 신고  
둥근 세상 둥근 공을 잘도 차네  
메시아는 구세주  
법과 정의의 복음을 전하네  
메시아는 메시의 제자들  
법치주의의 선봉에 서고  
세상을 구출하네  
키즈는 노는 아이들  
키를 찾지 못하고 킬킬킬  
메신저는 많은 사람들의 소통  
키신저는 전문가들의 소통  
아침의 사람과 사람들은  
정치를 생각하고 진리를 구하네  
메시는 많은 사람으로  
혼란을 마다 앓고 메시가 되고

키신저는 동학의 학자들로  
 진리의 전령사  
 수고를 마다 않는 키신저가 되고  
 수 많은 변호사들은 메시아  
 우리도 미국처럼 로스쿨로  
 수 많은 학자들은 키신저  
 오늘도 원리를 탐구하고  
 강의로 논문으로  
 우리는 시작으로 탄생으로  
 생시몽이 되어 꿈을 꾸는 생명  
 빵세가 되어 빵을 향하는 성인으로  
 우리는 평등한 낙원을 그리고  
 인생은 비리와 고난의 여정  
 우리는 철학자가 되네  
 조용필은 위대한 탄생으로  
 생시몽으로  
 브레드 피트는 빵세로  
 도인 같은 철학자로  
 생시몽은 메시로 메시아로  
 빵세는 빵으로 키신저로  
 귀납법의 정의는 원저성  
 영국은 전쟁의 혼 전쟁의 신화  
 수 많은 키신저들은  
 자기와의 싸움 극기의 학자들  
 결국 이기고 몸을 낮추네  
 원저성은 이기고 싶은  
 싶은 사람들로 인산 인해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소박한 버킹검 궁으로  
 연역법의 정의는 베르사이유궁  
 유로빠 당신은 법  
 우리는 법을 좋아하고  
 수많은 학자들은 베르 베르  
 검을 들고 베자 같기도 하고

배 부른 것 같기도 한 학자들  
학자들 사이에 당신이 있네  
베르사이유궁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우리는 메시  
혼란과 많은 사람들  
데카르트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키신저  
공부하는 노예들  
비코로 역사로 평등의 본래로  
은행 같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하루 하루는 원저성  
다시 또 선거철이 되어  
베르사이유와 함께  
당신을 그리고  
우리들의 아침은 신나요  
누리호 발사로 우주로 우주로  
이름도 걸맞게 한재흥  
꿈따리 싸바라 노래처럼  
한국인들은 흥에 겁네  
노교수의 일상은  
다시 또 소확행으로  
백악관처럼 하얀 악마  
백일섭처럼 하얀 하루

• 비 오는 일요일 오후 •

부제: 노동일과 문상일

비는 우리의 존재  
존재의 계속은 휴먼 빙  
잘살아 보세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웰빙 정신  
비 오는 일요일 오후  
비 오는 날 수채화 노래처럼  
정겨운 도시의 한켠  
행복을 그리고  
비는 주인의 징표  
주주클럽 노래처럼 나는 나  
족발이 되어 술 안주  
볼테르가 되어 귀여운 볼때기  
세상을 음유하고  
발자크가 되어 험하게  
소설을 들이 밀고  
발레리나 처럼  
우아하게 나래를 펴네  
입센 로랑이 되어  
우리는 입이 세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산울림이 되고  
창가는 완벽해져  
우리는 노래 명인 김창완  
우리는 한비자  
비 속의 철인들  
비자는 세계 속의 한국인  
비자는 아무나 받는데 아니다  
우리나라 비를 맞을 수 있어야 해  
퍼플 레인을 아는가?  
병역 거부가 문제 되어

우리나라 비를 맞을 수 없네  
그만 돌아 다녀 비자거부는  
유승준의 울분  
우리는 한강에 산다는 영화 속 괴물  
비히무쓰가 되고  
비아그라는 우리의 정력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처럼 되네  
비엔날레는 영근 비들의 나라  
비와 함께 성숙해진  
사람들의 날개 짓  
비엔나는 각국의 비들이 모이고  
외교의 중심이 되어  
대륙붕 협약이다  
접속수역 협약이다  
비에 젖어 집에서 동네에서  
나는 비 속의 전령사  
나라를 흥겹게  
꽃을 찾는 앓싸 호랑나비  
조그만 몸짓들은 나비들  
나비 효과는 천리로 만리로  
비트 코인은 작은 금융시장  
비트겐 쉬타인은  
작은 생각 세상의 큰 진리  
비는 비너스 같이 풍요로운 하느님  
맑은 날은 노동일 교수님 따라  
노동요를 부르고  
비오는 날은 문상일 교수님 따라  
장례식장에서 경배하네  
비오는 날 김씨는 김상중  
비는 우리의 혼을 일깨우고  
죽은 선현들의 유산은 무겁네

51. • 정부와 유엔 반부패협약 •

부제: 서보학과 동보성

여자도 아닌 것이  
정부가 되어 같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된장찌게  
거리의 점심은  
정부와 함께 육개장  
정부는 우리의 정치 경제  
정치는 우리의 정  
경제는 우리의 부  
합하여 정부가 되네  
우리는 행복한 한국 사람  
집에는 아내가 거리에는 정부가  
우리는 애국자  
국가에 충성하고 뼈를 묻네  
책상 앞 문사들은  
인도의 시인 타골  
뼈를 태우고  
아이디어를 짜네  
화랑대 연병장은  
프랑스 장군 드골  
자 이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 죽었소  
뼈를 바치고  
천리행군을 마다 않네  
사생활의 자유를 즐기고  
정부의 가야할 길을  
논하던 삼정승  
의정부 같은 우리들  
동두천 미군 부대 옆  
부대찌게 같고

아침의 의사는 까치와 까마귀  
폭 자고 일어난 상쾌한 아침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까치  
음해와 불면의 밤 슬픈 아침은  
시체 위를 맴도는 까마귀  
깁 것이 치사하게 안 되나요?  
깁 것이 마귀처럼 되었나요?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나  
우리는 주가를 살피고 일희 일비  
비트 코인 투자는 아무나 하나  
우리는 쌍방울 정치인들에 쫄쫄쫄  
정부는 정부인데 무슨 윤리가 있나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쓰고 한 마디  
정든 소식에도 쌓인  
정과 윤리가 있느니라  
공무원 윤리현장을 들이 밀고  
유엔 반부패협약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하루는  
서보학으로 동보성으로  
서쪽 사람들은 정부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책을 향하고  
동쪽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성 같은 중국 음식점에서 풍요를 즐기네

52. • 좋은 일 좀 하시게 •

부제: 노태악과 박형주

우리는 세상의 주인  
세상의 고해는 노에서 시작하고  
노는 엄한 자기 절제  
땅의 주인 엄마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고  
전쟁 속 절규는  
엄마 하며 산화하네  
노태악은 태산 같이  
쌍인 인생의 고해  
악은 산 같고 출세의  
흥겨움은 박연의 음악  
박형주는 박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체구는 별로 클 필요 없고  
단정하면 된다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냐  
머리를 좀 볶아  
언어는 바벨탑 같으니  
수학이 낫겠다  
자 박사 대표 해  
박노형은 오우 그런 박 노  
데카르트 같은  
원리 방법론 혁명만 있는게 아니다  
다른 박사의 모습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 지식인  
역사는 순환하고  
비코는 온건한 개혁주의자  
우리는 노형이 되어  
통상법으로 케이스로

우리는 학교 사회  
네덜란드인이  
조선에 귀화했다네  
비코의 나선형 역사가관인가  
불란서의 데자뷰인가  
라이덴 논문과 저널을 향하던  
박사들은 박연을 돌아 보고  
박사들은 박연이 되어  
학교에서 인연을 맺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네  
박사들은 활빈당  
힘든 세상 속 의리의 사나이  
많은 분야 세상 수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논문으로  
웹사이트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네  
우리는 지구 한켠에서 감읍하고  
세상의 정의에 몸을 바르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기뻐하네  
우리는 노태악  
힘든 세상 속 우리의 현실  
우리는 흠에서 나와 흠으로  
인생 악은 태산 같고  
우리는 백악관  
힘든 세상 속 우리의 영생  
우리는 백신처럼 잠시의 건강  
그 많던 악은 공수래 공수거가 되네  
정부는 우리의 정 우리의 부  
정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좋은 일 좀 하시게  
박사들은 연구 편당에 팔짝 튀고  
사람들은 다음 선거를 노리며  
동기 대법관은 코너로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악이 악이 아니고 산이란 뜻이래도

아침의 시인은 하하하  
기말고사나 출제하자  
연구실로 총총 걸음

53. • 이름 따라 삼천리 •

부제: 기형도와 이영관

사모관대를 쓰고  
성인식을 올리고  
상투를 트네  
고졸은 사람과 인문을 알고  
대졸은 전공을 아네  
대학원에서 주제와  
연구방법을 생각하고  
학자로서 자기를 방어하네  
우리는 상투 쓴 정치적 동물  
정치가 사라진 말년의 인생  
폐북의 엉터리 시인이 되고  
이름 따라 삼천리  
이름은 시공을 넘나들고  
우리는 사람 우리는 효자  
미친 바다 광해는  
인조로 효종으로  
하멜 표류기로 박연으로  
하멜은 한국이라는  
멜로 드라마의 이준석  
박연은 박사들의 인연  
학교 사람들  
우리 때 학생들은  
미제는 물러가라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은  
한국판 이란 사태  
배움은 모든걸 초월하고  
이상한 얼굴인지  
이상적 얼굴인지  
이치가 상면한다는 것인지  
스승님 이름이 새삼스럽네

세월이 흘렀다  
엄마가 돌아 가셨다  
스승님 함자 따라  
송씨 성 상을 받들고  
현실을 바라 보네  
새로운 스타들은  
우리의 정다운 후손들  
왜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은 많은지  
우리는 조사관  
검찰청에서 경사 났네 경사났네  
부정부패는 아닌가?  
최재경이 되고  
우리는 신촌에서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길게 하자 길게 하자  
김연경이 되네  
이제는 미제가 아니고  
추석을 그리는  
영어 문화원 시민들  
김영민 교수의  
이야기는 재미 있네  
아침의 우리는 김영민을 떠나  
이영관으로 이소호로  
영어 하는 변호사  
영어 하는 관리처럼 되고  
성이 있다 타락 조심  
소를 좋아하고 일을 사랑하네  
아침의 우리는 송상현을 떠나  
기형도로 기향도로  
세상은 파라다이스  
세상은 다이아몬드  
상투 쓴 전도연은  
말년의 영터리 시인이 되어  
기형적으로 세상을 흠치네

아침의 우리는 김연경을 떠나  
길게 길게 NBA 농구로  
사장님 장관님  
돈과 출세 같은 보스톤이 깨졌다  
내 엄마가 이겼다  
우리네 엄마들은 기뻐하고  
마이애미 히트는 이름대로 뜨겁네

54. • 노르만과 체르노빌 •

부제 : 노 교수들의 아침

우리는 글로벌 빌리지  
이웃으로 부터 빌리고  
서로 의지하며 동네를 이루고  
지구촌을 이루네  
원전은 개발론자  
환경론자들은 원전을 반대하고  
원전은 인류의 생명  
그런 피스 유럽도 원전인데요  
노르만과 골은 서양 세력의 뿌리  
노 교수의 아침은  
인생의 권위를 떠 올리고  
노르만과 골의 정서로  
백골 같이 하얗게 된 늙은 주름살  
전쟁과 평화는 국제법의 시작  
드골은 골을 들고  
처칠은 어려운 시기를 처와 함께  
노르만디는 2차 세계대전 하이라이트  
웨스트 팔렌 조약은  
서양인의 팔 국가들의 힘  
웨스트 포인트는 서양  
사람들이 선 장소 20세기 골  
민주화의 성지 대한민국 광주  
전쟁은 과학과 경제의 총력전  
급기야 맨하탄 프로젝트로  
원자력과 원자폭탄은 구별해야 하고  
테크노 민족주의는 경계의 대상  
우리는 원자력을 선용하네  
노 교수의 아침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체르노빌은 태산 같고

우주 같은 인력  
 빌리기만 하고 어떻게 사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몸  
 그만 빌리자 청운의 꿈은 별떡  
 불운하게 동네는 폐허처럼 되고  
 후쿠시마는 태산 같고  
 우주 같은 인력  
 인력의 뒷 모습은  
 후지고 시시한 말들  
 쓰나미는 쭈쭈쭈 나는 미국인데  
 방사능 유출로  
 우리는 월경피해금지의 원칙을 찾네  
 원자력은 세상의 동력  
 환경론의 이상은 현실에 좌절하고  
 우리는 다시 옛날로  
 개발 시대 원미경으로  
 열심히 개발하자 미국의 경사다  
 벨을 울리던 한 평생 학자 인생  
 자 벨은 이제 그만 노벨상에 웃고  
 이제 복지로 맥아더 상에  
 생맥주 집으로  
 이제 야외야 필드상에  
 주말의 골프장으로  
 십자군은 자 여자다 남자다  
 서양식 음양의 원리  
 굽자 구워 원시적 군대  
 유럽은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고  
 필립 4세는 종교에서  
 국가로 철학으로  
 노르만과 필립은 친구라는데  
 김대중에 이어 김필립도?  
 조크와 함께 너스레를 떠네  
 아침의 아이러니는 노벨 국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좌절

다자조약의 가입은 가입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중립국의 상징 스웨덴은  
튀르키엔의 에르도안에 막히네  
우리는 인력 우리는 원자바오  
인력은 부 창출의 원천  
우리는 원자 같이 작은 존재  
이치와 바는 세상만큼 크네

55. • 빨간 피와 하얀 피 •

부제: 유지태 조상제 교수를 회고하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역사  
지나온 과거들의 흑역사  
잘 풀리는 사람들은 흑임자  
비지니스는 양호하고  
권부의 고양이와 호호호  
우리는 역사 속 사이감정  
사이에 감정이 있다는 것인지  
그만 죽어 이치를  
감정해 보자인지  
우리는 사이다와 콜라  
우리는 사이다다  
이치로 향하는 수 많은 사무원  
우리는 콜라다  
조사관은 전화하며 라라라  
국제그룹은 정치자금으로  
명성그룹은 강호제현에게 고함으로  
한보철강은 철이 들자 현철이로  
결국 국가 부도다  
나는 에프다 권총 찾다 IMF로  
우리 흑역사의 기업들은  
하얀 피 이차돈 처럼 순교하네  
경제와 생존의 흑역사는  
하느님의 계시 주 예수의 부활  
기업인들은 법흥왕을  
따르고 이 차에 돈을  
학자들과 교수들의 흑역사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부활  
아이처럼 토하고  
전화처럼 전기가  
오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다는 우리는 그런 사이  
타락한 영혼들은 청량리 같고  
청량음료는 시원하네  
소와 일을 좋아 한다  
소호의 벽에는  
수 많은 영혼의 글들이  
기업인 이차돈과  
교수 김양은 타락의 세계로  
사람들의 거름으로  
이차돈과 김양은 자신의  
본 모습에 놀래고  
사이다와 소호는  
씨름판의 젓먹던 힘  
빨간 피는 우리의 생명과 하트  
하얀 피는 우리의 돈과 비지니스  
시작은 큰 애기였는데  
점점 쪼그만 놈이 되어  
우리들은 자신들의  
하얀 피를 돌아 보네  
밤무대 가수 노래 같은 강의  
여자의 뜨개질 같은 논문 작업  
아니 뭐 배짱인가?  
왜 뜨개질은 안 하고  
노래도 부르기 싫어 하나?  
이차돈은 신라  
큰 세상 세계시장  
신돈은 코리아 신토불이  
우리의 매운 돈  
우리는 독고영재  
우리의 아침 시간은 CNN 뉴스  
우리의 오후 시간은 영어 학원  
고독한 미식가처럼  
고독한 영재가 되네  
우리는 공효진

자타가 공인하는 진짜 효녀  
우리는 국보 소녀 나라의 보배  
우리는 일찍 간 유지태 교수 따라  
태산 같은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조상의 제를 올리는 것 같은  
한 평생 교수 인생  
조상제 교수의 유훈따라  
논문과 책 첫 장에는  
사랑하는 부모에게  
굵적 굵적 룬펜에게  
하느님의 한 마디  
하얀 피로 그만 버텨  
빨간 피가 되어야 오래 산다네  
사무실로 출근하려던 노인  
마음을 바꿔 운동 운동 체련장으로

56. • 남과 여 OST •

부제: 정명석과 문선명

사람은 중력으로 땅에 서고  
우리의 무게 중심은 낮네  
저를 계속하면 정이 되고  
우리는 만유인력으로  
서로 끌어 당기네  
고려의 꿈 나는 정몽주  
한국 개발의 주역 나는 정주영  
역시 나는 똑똑해  
명석한 나는 정명석  
그러나 꿈이 없고  
개발 정신과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네  
세상은 사이비 교주로 타락으로  
똑똑한 세상은 혼란으로  
동탁은 탁한 세상  
유방은 젓가슴을 흔들고  
항우는 초희와 몰락하네  
남과 여의 조화는  
세상의 전쟁과 평화  
우리의 여우는 지루하고  
여우의 계속은 동명사형 영웅으로  
남자들은 영웅으로 내몰리고  
꽃다운 가미가제처럼  
열사 안중근처럼  
가수왕 임영웅처럼  
남과 여의 코메디는  
문선명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은 선명하고  
동탁은 어림 없네  
남과 여의 비극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박순자는 교도들과 함께  
자신들의 세계로  
여당은 유방 브라보  
젓가슴을 흔들고  
야당은 항우 항문을 들킨  
패배의 치욕인가?  
초희와 함께 촛불 시위로  
병어는 덕자 생선  
여자는 벼 같이 익어  
우리의 밥상 앞에 놓인 병어 조림  
아귀는 수도자 고기  
남자는 아귀 같이 되어  
우리의 밥상 앞에 놓인 아귀찜  
우리들은 백지연  
백지연은 한국의 브룩 설즈  
가 놀이가 그렇게 재미 있수?  
흑산도의 가재미는  
하얀 백지 같은 인연으로  
하얀 백지처럼 맛이 간 아이들은  
서방파 OB파로 조양은의 양은이파로  
힘 좋습니다 몸에 문신이 가득  
어린 시절은 조양은  
은은하게 숨어 있는 서양  
젊은 시절은 김태춘  
서양으로 서방파로  
노년 시절은 이동재  
말 그대로 올드 보이  
우리는 글로 선명  
문선명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우리는 이미 공자  
이미자가 되어 멋들어진 노래



57. • 워크 이데올로지(Woke ideology) •

부제 : 흥준표와 설훈

사회주의는 인기 없네  
모 대학 사회주의  
모 대학 법대 사회주의  
모 대학 법대 박사 과정 사회주의  
아 사회주의가 아니고  
친목 모임이라니까  
처럼회도 아니고  
사회주의는 아무나 하나  
포도주 마시고 헤어지는  
동창회 모임이지  
우리는 개인주의 자존심  
자유와 자기 책임  
미국에서 배우고  
일천한 자본주의 역사  
인력 자본주의 현실에도  
자원 자본주의 미국 같은 자존심  
사회주의는 고편스(S. Gompers)  
폭스와 라이온 킹은 물러가라  
곰처럼 우직하게 의를 향하네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憐  
작은데서 경쟁력을 찾고  
집은 하나의 성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대한 세상은 경외롭고  
레이건과 대처는  
큰 시장으로 세계화로  
빅 거버먼트는 적자 예산  
수 많은 프로그램 큰 정부  
빅 소사이어티는 탈규제화  
시장에 대한 경외와 작은 정부

흥준표는 보수주의  
 모래시계 검사인데  
 배운 티가 나나요  
 째티가 나나요  
 한국의 드 썬티스  
 그렇게 하면 안되죠  
 빨갱이를 경계하자  
 설훈은 진보주의  
 인민의 뜻에 따라 한 방에 그냥  
 고스톱의 설사가 아니다  
 악마 같은 모리배  
 설악산도 아니다  
 대중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상을 그리고 해방의 날을 향하네  
 우리는 조문도 석사가의  
 모르는건 약이고  
 배워서 행복하네  
 청년의 우리들은  
 빅 거버먼트(Big Government)  
 정부는 나의 윤리  
 사회개혁 운동으로  
 노년의 우리들은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자유는 나의 윤리  
 캐슬 디펜스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파로  
 나이 적은 사람들은 좌파로  
 한국 정치는 치열하고  
 우리는 나홀로 집에  
 소년으로 학난성  
 조문도 석사가의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  
 우리는 깬다 깨  
 드 썬티스(De Santis)워크

이데올로지를 살펴 보고  
워크 이데오로지  
역사가 깊네 좌나 우나 깡다 깨  
어찌 이런 수학 교과서가  
어찌 성전환 체육인이 여자대학에  
우파는 깡다 깨 금지하자  
좌파는 아니 금지하다니 깡다 깨  
큰 사회와 큰 정부  
큰 부인 대처와 맑은 우리들 맑스  
대처와 맑스의 큰 주술은  
날이 가면서 더 복잡해지고  
노년의 우리들은 캐슬 디펜스나

58. • 장애인 만세 •

부제: 가락시장과 노량진 시장

선생님의 말씀은 부족한걸 알아라  
공부하라 재촉하네  
학생과 선생님  
모닥불 피워 놓고  
우리들 이야기는 끝이 없네  
이란과 김정은은 핵 문제아들  
하나님에 밑 보여  
학생으로 내몰렸네  
선생과 학생은 복지인지  
하나님의 사술에 속은건지  
공수래 공수거  
현고학생신위부군에도 즐겁다네  
우리는 메디칼  
하느님의 매디?  
중력 같고 스트레스  
같기도 한 하느님의 매  
우리는 일어 서네  
그만 맞고 칼처럼  
수면 지수 식사 지수  
건강을 지키네  
메디컬 인생은  
우리는 가락 시장  
우리는 건강한 가족 락을 향하고  
메디컬 인생은  
우리는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는 알량한 노동자가 되어  
보신주의로 연금계산으로  
부족한게 없는 우리의 메디컬  
하느님에 항거하고  
하느님의 사술이다

어야 디야 인생을 즐기자  
 하느님 눈에 우리는 장애인  
 하느님은 노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에서  
 장애인이 되었나 의아해 하고  
 메디컬에 안주하며 잠자는 우리들  
 우리가 잠 잘 동안  
 장애인들은 깨어 있었네  
 수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지만 깨인 의식들  
 헬렌 켈러와 이상목은 위대하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는 인간 승리  
 지식 혼혈인 지식 이누아는 대단하네  
 이제는 김씨 성 은행인가  
 김정은이 되어 핵이 되고  
 지식 혼혈인 교수들은  
 이란이 되어 핵을 갖네  
 국순당의 친구들은 아이구 무서워  
 골치 덩어리 북한과 6자 회담으로  
 골치 덩어리 이란과 핵 협상으로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  
 시장에서 헤매던 청장년 시절  
 옆방 교수는 김정은  
 닮았다고 한마디  
 이제는 환갑이 지나고  
 백발이 무성하네  
 링크드인 새 소식과 함께  
 김정은형 핵폭탄인가?  
 노벨상 호프풀 김필립 교수  
 벤자민 프랭클린 수상 소식에  
 이란형 핵폭탄인가?  
 막 들어 왔어요 싱싱합니다  
 모처럼 찾은 가락 시장은

허허로운 광장이 되어  
먼지만 날리네

59. • 공과 사의 영혼들 •

부제: 스위트니(Sweeney)와 스위트티(Sweety)

우리의 거리는 알링턴과 김연자  
알링턴은 서양의 용사들  
알은 링을 이루고 우리는 돈다네  
어야 디야 연자 방아를 돌려라  
김연자의 노래와 함께  
우리도 알링턴과 같이 연대하고  
죽어 오벨리스크 같이 장엄하네  
우리의 배움은 스위트니와 스위트  
행복한 아내와 딸은 스위트  
복수로 나아가는 이발사는 스위트  
삶의 터전 탐관오리 판사로  
티 자가 붙지 못하고 스위트니가 되네  
이발은 우리의 인생  
머리털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희로애락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행복한 이발사  
동네에서 힘을 빌리고 사람들과 화합하네  
스위티는 잔혹한 이발사  
스위티가 못되어 잔혹한 복수로  
어린 나이 아버지  
사랑 속에 행복했던 조안나  
터핀의 마수에 걸리고  
투명하고 행복한 부인  
루시는 거리의 거지 여인이 되네  
러빗은 서양의 이차돈  
서양의 하얀피  
나는 사랑의 빗쟁이  
사랑은 이제 그만  
빨간 피와 하트는 내 팽개쳐지고  
잔혹한 이발사의 공범이 되어

거리에서 파이를 파네  
오늘은 현충일  
천암함의 비극으로  
연자 방아는 돌지 않고  
용사들은 현충원의  
오벨리스크로  
어제는 어버이의 날  
조안나는 토드와 루시에  
카네이션을  
이발사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는 서균열 선생님 이름처럼  
비극과 희극 균열난 서양 세계를 받고  
서양 선생님들을 돌아 보내  
스위니 토드는 잔혹한 선생님  
사형이다 무죄다  
스위티가 아니고  
출가한 승려가 되어  
법창야화로 세상의 비극으로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행복한 선생님  
휘가로는 휘파람을 불고  
돈잔치 결혼 잔치  
복덕방 같은 정치로 정치로  
우리는 토들러가 되어  
토드에게 세상의 엄정함을 배우고  
우리는 알마비바가 되어  
세상의 현실과 동네의 이치를 배우네

60. • 필 하모닉과 우리의 정치 •

부제: 존 서머빌 서의필을 추모하며

후진국의 한은 서재필  
서야 한다네  
최초의 서양 유학생  
서양 의학 박사가 되고  
오바마도 놀래는 한국인의  
배움을 향한 열정  
우리들은 철학을 하고  
박사가 되려 하네  
우리들은 서재필 이름따라  
일거 양득이 되어 건강과 함께  
철학과 박사재림하고  
서양인 선생님은 서의필  
배움을 넘어 사람을 가르치네  
의로워라 써머빌 이름처럼  
동네에 의미있는 무어가 되어 한다  
한국에 모여 있는 박사 후 인생들  
한국의 지성과 학자들을 일깨우고  
우리들은 한국 남자  
큰 한국 남자들이 되고  
한남대에 모여 오지의 쉬바이찌  
디필(D.Phil)정신의 구현  
서의필을 추모하네  
필은 사랑을 의미하고  
성숙한 사랑은 철이 드네  
거리의 큰 광고판에는  
음악과 화합을 사랑하는 우리들  
파리 필 런던 필 뉴욕 필 서울 필  
사랑은 이제 그만  
민해경 노래에도  
필자 돌림의 아침은 멈추지 않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연하게 사랑을  
연필을 깎아 보고  
세상에 한 마디라도 남겨 보자  
서재필에게 배우는 사랑과 독립정신  
서의필에게 배우는 사랑과 봉사정신  
한국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는 정치로 복락으로  
가치를 잘 배분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서의필은 미국 목사  
전광훈은 한국 목사  
전광훈은 한국 정치를 일깨우고  
한국 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광주 발전을 위하여  
서재필은 한국 발전 개화당  
백종한은 지역 의회 의원  
하얀 한국이 되어  
발전하는 광주를 향하네  
사랑이 없고 철이 없는 세상  
선현들의 유훈 따라  
우리는 선생님이 되고  
문제가 산적한 현실 세상  
깨인 이웃 따라  
우리는 정치가가 되네

61. · 세상에 꿈짜는 없다 ·

부제: 무임승차와 약인

강의실의 학생들은  
포세이돈 포세 스칼라  
포세이돈 처럼 바다를 다스리고  
포세 스칼라처럼 되어  
이 돈이다 국제법 돈을 향하네  
15학점의 학생들은 킹 크랩  
아마겟돈은 기말시험의 전쟁터  
아마추어예요 게처럼 횡보하며  
돈이다 좋은 학점을 얻으려 하고  
공부가 무엇일까?  
우라늄을 농축하여  
원자탄을 만드는 것  
바다물을 말려 소금을 만드는 것  
우라늄은 친구 같은 교수들  
많은 페이지의 지식들  
교수들은 돈을 푸네  
교수들은 호리병 속의 지니  
강의실에서는  
호리병 밖으로 나오고  
퇴근 후 집에서는  
호리병 속으로 사라지네  
젊은 학생들은 우리의 희망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잠재력은 무한하고  
날으는 원더 우먼처럼  
재치가 번쩍이네  
세상에 꿈짜는 없다  
공부 안 하고 질문에 답 못하면  
좋은 학점은 무망하네  
우리의 사적 영역은 아담 스미스

아담과 이브는  
 가족법에 따라 혼인하고  
 우리는 대장장이가 되어  
 유형재 무형재 재화를 만들고  
 우리는 시장으로 계약으로  
 꿈짜는 없다 약인을 찾아 보고  
 사법 대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담배 2년 안 피운다는 약속이  
 약인(約因)이 되나요?  
 자유의 구속은 약인이 된다네  
 근로자의 한 평생은 자유의 구속  
 우리의 공적 영역은 제레미 벤담  
 수많은 사람들로 미미해지고  
 아담은 베이고 집 담은 무너지네  
 우리는 거리의 인격체  
 공리주의 쓰임이 있어야 하네  
 우리는 군인 우리는 공무원  
 공명심으로 충천하고  
 꿈짜는 없다 공법 대원칙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무임승차(無賃乘車)는  
 공정사회를 향하는  
 의사당의 골치거리  
 상속세를 없애자  
 상속은 무임승차가 아니래도  
 똑똑한 유튜버는  
 책까지 내면서 울부짖어도  
 의사당은 귀 기울이지 않고  
 법원에는 수 많은 조세 포탈범들  
 학자들은 아울(Owl)이 되어  
 자유와 공정사회를 외치네  
 사적 영역은 대가성 약인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간 어깨를 나란히  
 공적영역은 무임승차가 없어야 하고

우리는 비례감으로 법 앞에 평등으로  
기말고사의 캠퍼스는  
소리 없는 전쟁터  
학생들은 이성의 세계에서  
테스트 받네  
이성계 같은 이성의 세계 조선  
우리는 조선대로 조선일보로  
조선호텔로  
우리는 조선대에서 디씨플린  
우리는 조선일보처럼  
일베와 개미 정신으로  
우리는 조선호텔처럼 텔레방이 되고  
아리스토 텔레스처럼  
풍성한 지식의 세계로

62. • 시험 선수들과 태산 같은 친구들 •

부제: 이탄희와 이후락

게놈(Genome)은 우리의 유전자  
게놈 지도로 생명을 알게 되고  
우리의 진(Gene)의 세계  
우리의 빨간 피  
우리는 크랩처럼 인생을 지내고  
나는 킹 크랩이다 우두머리가 되네  
베놈(Venom)은 우리의 예술구  
당구의 신은 기기 묘묘한 예술 샷  
우리의 밈(Meme)의 세계  
우리의 하얀 피  
우리는 인동초처럼 인생을 지내고  
나는 영웅이다 공명심으로 산화하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이제 동네 유전자처럼 되었나요?  
빌리진은 예지 동네의 오라  
나의 사랑이 아니고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네  
우리들은 프란시스 레이의 빌리티스  
이제 동네티가 나나요?  
부시시한 아침은  
핵폭탄으로 타 버린 우리의 동네  
빌리진은 이제 그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티탄족이 되어 탄 티가 나나요?  
배운 티가 나나요?  
훈련 받은 티가 나나요?  
우리들은 프로메 테우스  
베놈 같고 이차돈 같은  
프로들은 매를 드네  
기말시험은 독약 같고

하얀 피들은 시험선수  
시험장에서 날아 다니네  
프로메 테우스는 태산 같은 친구들  
인간을 창조하지만 남자만을 창조하고  
제우스는 불쌍한  
남자들만의 세상에 여자를 보내고  
판도라를 통하여 세상은 도네  
여자들은 세상의 천태만상  
남극 같고 독약 같던  
남자들의 세계는  
빨간 피가 되고 연인을 향하네  
시험 기간의 우리들은 티탄족의 신화  
탄알은 충분한가?  
이탄희처럼 타는게 즐겁고  
이후락처럼 시험이후 락을 그리네  
계놈과 동네의 진은 우리의 영생  
베놈과 동네의 mim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기말시험의 우리들은  
이탄희로 이후락으로

63. • 피노체트와 피노키오 •

부제: 박종인의 땅의 역사

우리는 피가 싫다  
오우 피는 노  
피노체트가 되고  
피노키오가 되네  
피노체트는 칠레의 독재자  
우리는 몸이 되고  
혼혈가수 윤수일이 되고  
국민 노래 아파트를 흥얼 흥얼  
피노체트 처럼 되어 칠 것이야  
반대자들은 얻어 맞고  
피노키오는 커다란 코의 거짓말쟁이  
나의 열쇠는 거짓말로  
큰 세상 머리가 비상하여  
내로남불 거짓말을 일삼네  
우리네 세상은 피노체트와 피노키오  
우리 정치는 연성 파시즘이다  
신군부 정치의 부활이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은 보신주의 몸을 지키고  
세상은 그럴듯한 거짓말  
하나회는 좌천이 웬말이나  
정승화를 가두고  
김형욱은 실종되어  
파리에서 사망하네  
윤석렬은 열렬한  
석사가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의 여신상 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검사네  
조국은 조상의 나라  
한국이 아니고 영애씨 처럼

영어를 사랑하고  
교수직을 좋아하는 여선생이네  
어사출또 횃집에서  
소줏잔을 기울이며 누가 어사인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은 치열하고  
인제 그만 영애씨를 놓아주자  
검사와 여선생은 법정에서 흐느끼네  
영애씨를 놓아 줄 수 있나요?  
이제 윤석렬과 한동훈은  
검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후배 여검사의  
위트에 사람들이 웃네  
우리의 세상은  
거짓말과 보신주의의 변주곡  
김종배의 다이아몬드에 팔려가고  
모파상의 소설에 공감하네  
다시 또 선거철이 돌아 온다  
우리는 용인과 신갈을 왔다 갔다  
누가 용이 될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갈리는 곳  
신갈에서 대한민국은  
신발을 갈아 신네  
피노체트와 피노키오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진실  
우리의 한가한 시간은  
박종인의 땅의 역사로

64. • 686세대와 서울 올림픽 •

부제: 영천 육군 제 3사관학교의 추억

서양은 바다와 대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싸우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큰 세상 우리의 생존  
산티아고가 되어  
태산 같은 인생은 큰  
바다 앞에 아이가 되어 떠나 가네  
펼벽의 대지는 세속의 영화  
왕룡의 인생은 빈손의 촌부에서  
대지주로 번창하네  
펼벽의 대지는  
육군의 정서 프랑스의 노을  
부르봉은 프로방스의 풍성함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폴대라고  
주장하는 걸레 할아버지  
바다로부터 대륙을 봉쇄하자  
오르리라 오를레앙의  
잔다르크 정신이 되고  
루이의 부르봉은 남자  
루루루 착하게 살자  
우리는 봉주르 김봉남이 되고  
앙드레 김 패션과 함께  
원앙을 이루네  
보나파르트의 나폴레옹은 여자  
여자들은 파르르하고  
제국을 향하네  
우리는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과자를 즐기고  
파리 바게트에서  
큰 빵으로 점심을

프랑스의 18세기는 혼돈의 정치로  
루이와 나폴레옹은 결합하여  
루이 나폴레옹이 되고  
왕도 아니다 황제도 아니다  
유럽의 정서는 이제 그만  
우리도 미국처럼 대통령을 두자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해군의 정서 영국의 노을  
노인은 평범한 쿠바 사람  
인생은 쿠 한평생 반지를 끼었어요  
씨지프스의 신화처럼 끈질기고  
헤밍웨이처럼 멩멍한 한 평생  
주름진 노년의 인생 길  
바다의 사나이들은 타이타닉  
그리스 영웅들은 좌초하고  
티탄족의 최후는 히말라야 조항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은 확대되고  
바다의 우리들은  
헤라신의 은혜를 받아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되고  
잠시 잠깐 인생 픽 하며  
올림픽처럼 힘과 기예를 겨루고  
와 땡이다 반지를 끼었어요  
쿠바가 아니고 쿠베르땡이네  
남작 이름처럼 베르 베르  
세속의 영화가 쏟아지고  
성스럽고 불꽃 같은 우리 인생  
올림푸스의 성화처럼 타 오르네  
헤라신의 헤 자는  
헤이그 해상운송 협약으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로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로  
헤이 헤이 하며 찢러 보자  
헤이스팅스로

우리의 지성은 사람으로  
이황은 이치에 화를 내고  
비판정신을 갖자  
이이는 하나를  
깨달으면 돌을 알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우리들은 학도 배움과 희망  
괴테처럼 기이하고 태산같이 크네  
기대승 이름 따라 우리는 승화하고  
김굉필은 이름대로 굉장하고  
학문은 높고 후학은 번성하네  
은총을 깨갠다는 여배우 이름따라  
우리는 그레이스 켈리가 되고  
아라비아 로렌스가 되네  
우리는 공군 우리는 학교 사람들  
인교진이 되어 진짜 가르치는 사람  
소이현이 되어 이치를 따지고  
티어리 가르썬(Tierry Garcin)이  
되어 이론을 가르치고  
장 자크 패트리(J. J. Patry)  
가 되어 나무를 뽕개보자 도전해 보자  
서울 올림픽과 함께 올렸던  
686세대의 결혼이 아득하네  
요즈음 젊은이들  
결혼을 좋아해야 할텐데  
3자녀 국가에 충성했다는  
옆 방 교수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65. • 교육은 백년지 대계 •

부제: 커피 한잔의 아침

강산에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육  
강남 스타일은 우리의 자본주의  
우리의 돈과 출세  
우리는 강남 좌파를 말하고  
문화 전쟁을 얘기하네  
나이 들어 교수병이 걸렸나  
출근길 캠퍼스는  
강산에의 힘찬 연어처럼  
강산의 대학들은 우리의 정  
686세대 대학 시절 조크들  
어느새 후학들이 새로운  
이름 스카이라 부르네  
서울대학교는 셋다 우울하다  
최인호의 불새가 되고  
영화 애마부인에 숨 죽이자  
고려대학교는 우리는 한국인이다  
민족 대학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연세대학교는 연대하면 힘난다  
국제사회를 알자  
연성 미국정치로  
학교는 우리의 힘  
건국대학교에서 나라를 느끼고  
서강대학교에서 서양 학문을 받고  
단국대학교에서 달구나 나라를 알아 보고  
배재대학교에서 배즙 음료수를 시원하게  
한남대학교에서 한국 남자가 되어  
한세대학교에서 한국은 최고로 세다  
조선대학교에서 역사를 즐기고  
한양대학교에서 음은 이제 그만  
조그만 한국의 현실을 돌아 보네

헨리 8세도 아니고  
루이 14세도 아닌 것이  
하느님의 실험실이 되었나?  
어찌 학교 이름 같고 장난을  
다시 또 우리는 경건해지고  
학교에서 우리는  
가짜로 왕이 되어 세상을 배우고  
진짜로 고 일병이 되어  
시험선수가 되네  
학교는 우리의 디서플린  
사회재생산 문화재생산의 현장  
우리는 교육을 말하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네  
국가는 생산자 편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어느 학자  
세상을 확 바꾸자 거리로 운동권으로  
세상의 지식은 가진 자의  
인식 체계라는 어느 학자  
학교는 감옥이나 군대와 다르지 않다네  
우리는 자유인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  
착취와 부정의를 혐오하고  
공정사회를 얘기하네  
서균열 교수 이름 처럼  
균열난 서양은 교육마저 좌다 우다  
선배들은 큰일 났다  
이상면 스승 고승덕 선배는  
교육감 선거로 좌절하고  
검찰은 스카이 캐슬  
보수 기득권의 상징  
경찰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조국 교수는 파면 되고  
우파들은 폭력사건이예요  
애들은 정직하다  
좌파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갈등이론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진실의 발현으로  
자유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  
내용 중립적(Content-neutral)으로  
방식과 장소(Place & Manner)  
만으로 규제를  
동양의 지혜는 교육은 백년지 대계  
사회의 공정성의 상징  
패스트 우롱(Past wrong)에는  
그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제는 부당한 보상이다  
역차별이 되어 정의와  
형평의 심판대에 오르네  
다시 한번 돌아 보자  
지배와 종속은  
기득권 체제의 대물림  
상속세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어도  
흡수저 금수저론은 우리의 지혜  
사회의 개혁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으로 부터  
신문은 두 대법관을 비교해 놓고  
역시 내치는 어려워  
밖에서 바라 보는 사람들이 냉철하지  
우리는 외투 입고  
참외를 즐기며 노래 부르네  
송두율이 되었다  
송재윤이 되었다  
참외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나?  
좌파 친구들은 송두율로  
우파 친구들은 송재윤으로

66. • 국가주권설과 국가법인설 •

부제: 싱하이밍과 황보승희

작은 나라는 귀염이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  
니 몸은 왜 그렇게 크냐?  
자유를 향하지만 허무하네  
중국에는 신은 죽었다  
우리는 내맘대로 세상  
자유를 드리고 히히히  
국제법 교수들은  
주권평등의 원칙을 부르짖고  
지속적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는  
관습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의사주의 국제법을 가르치지만  
세상은 세력균형 정책(Balance of power)  
세상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세상은 밴드웨곤 이펙트(Bandwagon effect)  
세상은 보수로 회귀하고  
중국은 공맹시대가 그리운지  
패권주의로 가르치자로  
싱하이밍은 구한말  
위안스카이처럼 오만하고  
천안함은 망했는데  
위씨 성 누구의 하늘은 안전한가?  
여자가 셋이면 간통왕  
사람이 셋이면 오만한 원세개  
작은 나라 노래는 싱가포르  
노래를 부르는 집  
포르노는 노 포근함은 오케이  
큰 나라 노래는 싱하이밍  
우리는 하이 대국 사람들은 높다  
우리는 밍 우리는 밍크

미미하지만 크고  
 꼬리 같지만 맛있다  
 외교관으로 할 말을 했다고 버티고  
 우리는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인가  
 일본인 처럼 이름 자가 네자  
 아시아의 승리에요  
 희희 락락 황보승희 의원은 병찌네  
 동아시아는 이념 국제정치의 벵가드  
 나라들로 흥역을 치르고  
 외교와 국제법의 기본은 국제예양  
 무례한 자에게 주권의 신성함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를 말하고  
 외교관의 책임을 강조하네  
 미국은 이념 국내정치의 벵가드  
 사람들로 흥역을 치르네  
 정치와 헌법의 기본은 자유와 평등  
 소외된 자들에게 정의를  
 이민자를 보호하자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국가와 사람이 무엇인지  
 아침의 시간은 엘리네크 선생님께서  
 국가는 정치학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군주주권설 국민주권설을 넘어 국가주권설로  
 국가를 사회학적 법학적으로 이해하자  
 국가는 사회학적 공법단체가 되네  
 역시 정치나 사람들은 무서워  
 군주주권설은 폭군 네로  
 짜르 푸틴과 김씨 왕조  
 국민주권설은 볼셰비키  
 인해전술의 인민군  
 이민자들의 아우성  
 부정의한 선거구 획정  
 차별적 성소수자 정책  
 국가주권설은 국가법인설로 발전하고

법정에는 피고 미국 나왔나요?  
우리들은 피고 대한민국 나왔나요?

67. • 좌우정치와 회색분자들 •

부제: 피트 부티지지와 빈곤 포르노

요정은 피터팬(Peter Pan)  
세상은 피바디(Peabody)  
피는 우리의 생명  
요정은 피의 터전의 요리사  
우리는 피터팬이 되고  
우리는 혈기 왕성한 몸 강낭콩이 되네  
강낭콩의 우리들  
공적 생활은 의를 향하고  
사적 생활은 부를 향하네  
부와 자본주의는  
진짜 소유에 마음이 있다  
소유진이 되고  
나는 진짜 용이야 멸공을 외치며  
정용진이 되고  
세상은 원초에 하얗다 공공정책이 웬말이나?  
백종원이 되네  
권력과 사회주의는  
부르통통 진짜 걸레들이 싫다  
맑게 살자 맑스  
걸레들을 베어 버리자 레닌  
나는 별이다 린치도 서슴치 않는다  
독재자 스탈린이 되네  
우리는 거리에서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피의 세상 우리는 부티를 지지한다  
군부 대통령은 평양 거리와  
서울 거리를 비교하며 미소 짓고  
야당 정치가는 인간애의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 비양하네  
털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식

맑스의 수염인가  
 모택동은 털자 이름 동쪽의 맑스가 되고  
 우리의 등은 우리의 노동  
 논 가는 소는 우리의 일  
 등소평은 노동당 총서기가 되어  
 동무 동무 동지 동지  
 동료 심사(Peer review)교수사회 처럼  
 노동과 일을 평하네  
 세상은 요지경  
 개미들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은 빛난다  
 털자들의 사회주의는 열광하는 평양 공민  
 학자들은 회색 분자  
 개미가 되었다 수염이 되었다  
 개미들은 포춘지 르 피가로  
 대박을 그리며 복과 땡을 향하고  
 수염들은 워싱턴 먼쓰리 리베타시옹  
 월급 생활 시시한 할아버지 연금생활  
 공공 문제의 핵심을 향하네  
 학자들은 무한 귀도  
 학자들은 학문과 철학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박사들  
 수에 관한 철학으로 수학과가 되고  
 경제에 관한 철학으로 경제학자가 되네  
 사회에 관한 철학으로 사회학자가 되고  
 심리에 관한 철학으로 심리학자가 되네  
 우리는 필로조피(Philosophie)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앎이다 지나가 되고  
 하버드 교수가 되어 땡 잡았다  
 지나 슈땡(Gina Shouten)이 되어  
 땡 신발을 신고 철학을 하고  
 나는 미국에 있다 라라라 꿈을 꾸자  
 미셸 라몽(Michele Lamont)이  
 되어 사회를 가르치네

68. • 스탈린과 모두 다 사랑하리 •

부제: 그랑제콜과 종합대학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에이 우리는 아이다  
에이 아이(AI)세상이 되고  
시민을 향하던 목민관 선배는  
에이 아이를 알아라  
역시 노동은 아이들이야  
소년 노동 착취에  
자본주의를 혐오하던  
맑스와 의혈 남아들  
차일드 레이버(child labor)  
프리즌 레이버(prison labor)  
인권을 주장하던 문명국들  
이제는 에이 아이 에이 아이  
어제의 비지니스 하얀 피 세상은  
굴러가는 자동차들  
똑똑이 똑순이들은  
카르텐슨(Cartenson)과 차승원  
차들은 긴장하고 나는 이긴 사람  
오늘의 비지니스 하얀 피 세상은  
아이클라우드(i cloud)와 스탈린  
이클라우드에는 구름처럼  
몰려 있는 아이들  
에이 아이(AI)는 나는 만물 박사야  
에이 아이는 스탈린  
새로운 세상의 스타  
앞의 세계의 독재자  
에이 아이는 시장과 국제사회  
국제법은 법이 아니에요  
계약 같은 국제조약도 법인가요?  
지속적 반대자에게는

관습법의 효력이 안 미치다니요?  
법관의 제척 기피 제도는 어디 가고  
국적 재판관이라니?  
법관은 모두를 대표하지만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법언은 어디 갔나?  
국제법에는 전기의자 같은  
스탈린도 없고  
효봉스님 같은 법관도 없다  
국제법에는 모두 다 사랑하리 같은  
송골매도 없고  
수권법 같은 히틀러도 없다  
국제사회는 법보다 합종연횡  
손자병법이 훨씬 나요  
그러나 우리는 국제법도 법이다  
조약을 넘고 모범법 연성법으로  
모두를 위하여 강행적으로  
어르가 옴니스(ergs omnes)를 찾네  
전쟁과 평화의 법은  
한쪽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한쪽은 평화 유엔으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앞이 안 보이고  
미국이 유네스코에 다시 가입했다  
한국이 다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다  
세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상은 평화를 향하고  
현실은 돈과 출세를 향하네  
법은 우리의 이상  
유엔은 평화의 상징  
로스쿨 입학 경쟁은 치열하고  
로펌은 삼성처럼 되어  
또 다른 취업전쟁  
나폴레옹은 우리의 현실  
파리 대학은 평준화 되고

상경계 그랑제꼴 시앙스 포에는  
줄을 선 지원자들  
정계와 재계 지도자  
배출의 산실이 되네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은  
국제통상의 현실인가?  
잡동사니 모든 통상법이  
옴니스 에듀케이션(Omnes edu)은  
새로운 시대 파리 대학의 부활인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는 홍익인간 우리는 홍익표  
우리는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새로운 AI 세계에도  
사랑으로 돈과 출세로  
내가 스탈린처럼 느껴지나?  
왜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를 듣다  
깜짝 놀래지?

69. • 한강수는 오늘도 말 없이 흐른다 •

부제: 성낙인과 이우주

성낙인은 낙천적인 우리  
한국인의 빨간 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났지만  
세상은 살만한 것이야  
우리의 강산 우리의 역사  
이우주는 합리적인 우리  
한국인의 하얀피  
땅은 비좁고 세상은 각박해도  
지혜와 학문의 세계로  
우리의 공간 우리의 머리  
노년의 나스탈리아  
아침의 신문은 한수 박물관장  
우리는 바둑 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수 한수마다 세상을 배우고  
한강수는 말없이 또 하루를 흘러가네  
서양은 앙리와 임마누엘  
계약은 앙리 앙숙인가 파트너인가  
결합한 당사자는 이득을 향하고  
우리는 임마누엘 말이 임하고  
우리는 엘처럼 예쁘게 시간을 지내네  
동양은 짐과 임금님  
신분은 짐 높은 신분으로 앞에는  
태산 같은 짐 할 일이 태산이다  
우리는 임금님 돈이 임하고  
우리는 님이 되어 최저임금을 정하네  
우파 정부 시민은  
정부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하얀 우산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바쁘다는 듯이 당신이 나 먹여 살릴거야?

좌파 정부 시민은  
정부는 우리의 시장  
우리의 노랑우산  
억울한 위안부에게  
큰 일을 했다는 듯이 몇 프로로?  
옆 걸음은 우리의 생명  
일상의 사장님은 공짜 돈은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  
짜고 파자 게티가 나나요 짜파게티로  
우리는 서양과 우파에서 배우고  
일상의 공무원은 무임승차는 없다  
법치와 평등의 원칙 사회운동으로  
게티가 나나요 스파게티로  
우리는 동양과 좌파에서 배우네  
성낙인은 빨간 피 우리의 생명  
성낙인의 한수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정부는 죄형법정주의  
함부로 사람을 벌할 수 없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후 입법은 안된다 자기 입법은 안된다  
이우주는 하얀피 우리의 비지니스  
이우주의 한수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시장은 의사자치의 원칙  
관습법은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사실인 관습은 개인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70. •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

부제: 매킨토씨와 야후

우리의 청장년은 슬픈 돼지  
우리의 노년은 사랑의 슬픔  
크라이슬러는 이름도 그렇구나  
울고 슬프고 관절은 물러지네  
슬픔은 우리의 힘  
주미 강은 미물에게도 힘을  
손열음은 열어라 건반위 손  
풍요로운 세상은 아비투스  
경제만이 진실인가?  
우리는 정치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  
아이들은 날으고 이거 허위의식이 아닙니다  
사회 기성관념 관습 모두 바꾸어야 되요  
부르조아지 뒷시간  
부르뒤에의 시간은 동기 이름들  
먹고 살만하게 된 인간들의 진실은  
노동자 혁명에 식상하고  
유식과 정무식을 떠올리네  
우리는 유식이 되어 사회 기성관념을 알고  
우리는 정무식이 되어 바뀐 바뀐 짝 바뀐  
우리의 가족 시간은 매킨토씨  
행복하게 맥히고 즐겁게 토하네  
우리의 거리 시간은 야후  
와 거리다 환호하고  
거리에는 예쁜 옷을 입은 후진 돼지  
선남 선녀들로 가득하네  
우리의 영혼은 슬픈 돼지 사랑의 슬픔  
G선상의 아리아는 처량하고  
슈베르트 세레나데는  
자살로 나르시스트로  
타이스의 명상곡은

깊고 깊은 무간지옥의 영혼으로



71. • 법률가의 하루 •

부제: 마피아와 손정의

마피아는 무슨 윤리냐?  
나라는 망하고  
모리배들은 세상 만났다  
우파 정부는 레이거 노믹스  
작은 것은 강하다  
살길은 사람들의 힘과 재능  
원자 같은 개미가 되자  
원자력은 우리의 나아갈 길  
원전 마피아는 설치고  
좌파정부는 맑스와 그린 피스  
우리는 맑게 녹색은 푸르다  
살 길은 수요중심 경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환경과 태양광은 우리의 나아갈 길  
태양광 마피아도 만만찮네  
시나트라 독트린은 민족국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제국은 해체되고  
나라가 망했다 경사 났네 경사났네  
러시아 마피아는 이게 웬 떡이냐  
손은 우리의 노동 우리의 시장  
우리는 일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둑의 최고봉에게  
국수(國手)라는 타이틀을  
공부한 법관들에게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손기정은 대한민국의 기상을 만방에  
손지열은 열나게 공부하는 대법관  
손흥민은 노동의 흥을 돋우고  
손정의는 노동의 정의 시장의 정의

부르조아 세상은 시장의 경쟁  
부르투스는 시장에서 투쟁하는 우리들  
엑스포 유치전 싸우디와 싸우디?  
정든 우리가 이럴 수가 정유정에 치를 떨고  
킬러 조항은 불공정 경쟁으로 구설수에  
마피아와 손정의를 우리의 이차원  
마피아는 무너진 공법생활  
검사와 경찰은 공법적 정의를 회복하자  
공무원의 청렴과 윤리를 따지고  
조사실에는 수만 페이지 수사기록  
손정의를 피 튀기는 사법생활  
변호사들은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자  
계약서 말미마다 관할이다 준거법이다  
보일러 플레이트 조항으로

72. • 바이든과 날리면 •

부제: 옌스 소어링(Jens Soaring)사건에 부쳐

우리의 힘은 독일  
아인슈타인의 원자력  
2월 혁명의 노동자들  
멜로 드라마 주인공 같은  
메르켈이 되었다  
페르시아 의상을 두른 솔츠가 되었다  
우리의 세상은 마키아 벨리  
마씨는 마동석 같고  
권력을 향하는 절대 군주  
아이의 열쇠는 사자가 되었다  
여우가 되었다  
힘 세고 교활한 군주의  
배는 불룩해지고  
국제사회는 사우디 아라비아  
유엔 회사의 동료 사원이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되어 싸우디?  
정글 같고 아수라 같은 세상에서  
비아가 되자 살 길을 찾네  
유엔 총회는 사우디  
우리는 사우들  
관습법을 성문화 하자  
인권을 세계화 하자  
유엔 안보리는 싸우디  
우리는 안전보장체제  
평화유지군을 조직하고  
통상법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  
세상은 요지경  
바벨탑의 혼란은 아직도?  
옌스 소어링은 독일 유학생

버지니아는 외국 학생의 처녀지  
 바이든 v. 날리면인가?  
 영어에 종긋하고  
 영어가 쪼끔 가난한 영어 나라 조국을 떠나  
 모든게 영어인 미국 땅의 학생이 되어  
 언더 더 씨(Under the Sea)  
 만화 영화처럼 생동감 있는 영어  
 단어가 날은다 날으는 주전자에 먹히고  
 앤티 에고(Anti-ego)같이 되어 버린  
 독일 청년의 힘은 가늘게 거세되고  
 급기야 애인인 미국 여학생은 살해 되네  
 우리의 세상은 마키아 벨리  
 정치가 필요해 비엔나 외교관 협약  
 행정이 필요해 비엔나 영사협약  
 나라들은 유엔의 회사원 동료들  
 사우디 v. 싸우디  
 어떻게 들려?  
 사우디인데 하며  
 유엔 총회로 우리의 이상으로  
 싸우디인데 하며  
 유엔 안보리로 심각한 현실로  
 국제사회는 영사 접견권  
 국내사회는 변호인 접견권  
 힘 있는 신사 예의 바른 옌스  
 어찌 일어서서 저지르고 말았나?  
 우리는 영사 접견권이 무시되었다  
 극형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범인을 인도하는 것은  
 인권협약 위반이다  
 주 정부는 국제사회  
 법인격자가 아니다  
 미국은 국제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하느님의 실수 국제사회의 부조리

사우디 v. 싸우디인가?  
우리는 사우디로  
비엔나 영사협약을 찾고  
우리는 싸우디로  
독일은 외교적 보호권  
미국은 국가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를 향하네  
바이든과 날리면  
힘 있는 신사 예의 바른 윤통  
어찌 일어 서서 저지르고 말았나?  
우리는 사우디와 싸우디  
사막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남성들은 살자 살어 무하마드 빈 살맨  
사막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성들은 사하라에서도 정이 드네요  
사라 정(Sarah Chung)  
우리들 세상은 사막과 오아시스

73. · 세네갈과 생각하는 갈대 ·

부제: H-폭탄과 H-인덱스

중년의 어머니는 고훈진  
만추의 김혜자처럼 외로운 영혼  
피부에 좋다네 고훈진을 찾네  
말년의 어머니는 관첼  
고훈진은 상형문자  
관첼은 표음문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관절인지 관첼인지  
관첼은 관절에 좋다네  
정치와 경제는 세네갈  
우리는 세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교육은 모나리자  
인도 총리 이름은 모디  
성남의 대모산을 바라 보며  
어머니를 그리네  
올려 보자 올림픽  
아이들은 학교로 사교육으로  
한국의 문제는 금수저 은수저  
킬러문항은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난받고  
미국의 문제는 적극적 평등화 행위론  
학교의 입학정책은 법원의 도마위에 오르네  
작은 나라 한국은 중앙집권형  
국가적 차원의 입학정책  
큰 나라 미국은 자유의 땅  
학교의 입학정책은 학교의 자율에  
헌법의 수범자(受範者)는 국가 아닌가요?  
사립대나 공립대나  
입학정책이 왜 똑같이 법원에서?  
공동주거지역 인종간 주택거래 차별  
쇼핑몰 인종간 출입 이용에 관한 차별

사립학교 인종간 입학 차별  
 전 사인인데요?  
 계약의 자유는 뭔가요?  
 항변은 통하지 않고  
 국가행위이론은 이들에게도 헌법을  
 이들에게도 윤리를  
 현실은 너무 비싸다  
 현세는 장난이 아니다  
 현실감 있는 만화작가는 이현세  
 미국의 학자들은 리걸 리얼리즘  
 영국의 학자들은 네오 리얼리즘  
 우거에서 시는 꿈짜로  
 현실감 있는 만화 작가는 이현세  
 리얼리티 쇼 이것은 실화다  
 TV앞에는 수 많은 시청자들  
 이걸 구경해야 즐기라도 할텐데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은 3억원이 넘고  
 폴 앙리 나졸레는 사고를 만나네  
 아침의 우리는 교육으로 입학정책으로  
 하버드는 우리 밑은 새처럼 자유롭다  
 하버드는 우리는 바지씨다  
 법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하버드 티 내지 말자  
 H-폭탄 터트리지말자  
 아침의 우리는 교육으로 과학자들로  
 대학원도 올려 보자  
 올림픽 뒤에는 스페셜 올림픽  
 우리는 스페셜 우리는 특별나다  
 과학자가 되어 학과를 찾고  
 주제를 정하고 깊게 깊게  
 우리들은 주제의 장애인 같이 되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 박사예요  
 이순신 연구로 박사가 되었어요

연구자들은 여자인가?  
어찌 이름도 그녀의 그녀  
H-Index 허쉬(Hirshe)는  
연구자들의 지수를  
아침의 하루는 발성과 의미로 뒤죽박죽  
관절에 좋은게 관철헤만아 아니라네  
콘도로이친은 코에 걸맞게 흠치고  
법에 친한 바른 마음  
작은 노년 관절건강의 비결  
김학의는 동학의 의로움  
공부도 쉬어가며  
룸싸롱 유흥은 사회 관행 아니우?  
박영수는 공부하는 우리들  
천공스님처럼 화천대유처럼  
하늘을 같이하고 대 유학자의 자세로  
아침의 우리는 티 내지 말자  
티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다시 엠아이티(MIT)가 되어  
내가 티가 나우?

74. • 전쟁이 남긴 상처들 •

부제: 풍신수길과 법학 교수들

주자는 붉다 주논개는  
일편단심으로 국가를 논하네  
동양의 자본주의는 붉은 단심  
서양의 자본주의는  
하우 투 부르(how to brew)  
어떻게 끓일까? 어떻게 부르킹스  
어떻게 불려서 왕이 될까?  
동양에도 제국주의가 있다  
분당의 빙의인가  
남한산성의 원혼들은  
삼전도의 치욕  
마부대는 말 같은 부대  
앞으로 앞으로  
용골대는 용가리 통뼈  
뜨악 뜨악 불을 뿜네  
행주산성의 빙의인가  
십만양병설의 원혼들은  
몽진의 치욕  
소서행장은 작은 서쪽  
왼쪽으로 먼 길을 떠나네  
서해안을 길 삼고 한양으로  
가등청정은 등짝 죽인다  
우세의 오른쪽 집에서 젓먹던 힘을  
청 태종과 풍신수길은  
인조와 선조의 풍진 세상  
우리는 삼전도로  
삼각산을 하늘 삼고  
우리는 신의주로  
의로운 주인이 되고자 몸 바치네  
청 태종은 우리에게 정치와 경제를

김상헌이 되어 옛것을 지키자  
명을 향하고 수구파가 되고  
최명길이 되어 최면 속의 밝은 길  
청을 향하고 진보당이 되네  
풍신수길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와 지혜를  
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권율과 주논개  
권력과 권리를 말하고  
정당한 법은 이렇다 저렇다  
붉은 피가 되어 풍진 세상 수려한  
길이 무엇인지 논하는 진도개들  
청 태종은 우리에게  
인조의 오만을 가르치고  
우리는 사람만으로 안 되겠다  
우리는 가족과 경제로  
봉림대군을 찾고 효종으로 추서하네  
풍신수길은 우리에게  
선조의 오만을 가르치고  
우리는 선지해장국은 안 되겠다  
바다로 바다로 임해로 광해로  
위대한 한국인은 중국보다  
훨씬 부유한 가족 경제  
일본과 같은 바다의  
저주는 남의 나라 얘기

75. • 세컨드를 아시나요? •

부제 1: 콘도미니엄과 이상돈

부제 2: 이강국과 윤태식

세컨드를 아시나요?  
정치가 없고 감옥도 없는  
자유인들의 세계  
글쟁이들 학자들의 세계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명백 현존의 원칙을 찾네  
글쟁이들은 종생의 터  
오늘도 터미널에서 애포칼립스처럼 되어  
자필유언 구두유언 유언을 남기네  
우리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찾고  
증인없는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자유인들과 학자들은 김수임과 수지 김  
물에 임하고 물을 아는 여신들  
정치와 경제는 이강국  
강한 나라 강성대국으로  
해방정국의 로맨스는 김수임과 이강국  
정치와 경제는 윤태식  
시장의 분투는 태산 같고  
복지시대의 로맨스는 수지 김과 윤태식  
룸펜의 하루는 이상돈  
이재용이 아니에요 세컨드들의 돈인가?  
시간은 금이다  
굽적 굽적 시간을 때우고  
인동초의 인생으로  
돈은 돈 놓이다  
이상하게 돌아 이상한 돈이 되고  
가미가제 도라 도라처럼  
종생의 터 인생 터미널에서

김영웅이 되고 임영웅이 되네  
 공유의 아침  
 은퇴한 노인 실업의 비애에도  
 우리는 에티켓 미소 짓는 공유  
 우리는 같은 배 미소 짓는 동포  
 정애리의 아침  
 정애리는 인간과 가족의 사랑  
 코만 남은 룸펜 코인 팔이 정애리  
 맛있는 부추전 부자 정애리  
 세컨드의 세계는 펜션과 콘도미니엄  
 펜을 들자 펜션이 되어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공유의 정의를  
 복지를 도안하고 펜션 플랜이 되네  
 세상을 훔치자 콘도가 되어  
 세상 속 작은 개미들 가족은 비밀번호  
 엄한 프라이버시 미니엄이 되네  
 여름 방학의 룸펜은 펜션이 되었다  
 콘도미니엄이 되었다  
 펜션 같은 연구실을 찾고  
 학교 캠퍼스 같은 콘도미니엄을 향하네  
 단순한 한 표가 아니에요  
 단순한 국가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장 우리는 시장의 콘도미니엄  
 가게는 거시 경제의 시작  
 우리는 국가 우리는 국제법의 콘도미니엄  
 공동지배는 국가영역론의 시작  
 퍼스트의 하루는  
 이강국과 윤태식의 변주곡  
 정치와 경제 공과 사 이분법의 세상  
 이강국과 윤태식의 슬픈 사랑  
 세컨드의 하루는  
 공유와 사생활의 변주곡  
 복잡한 세상 속 이상한 돈들이

76. • 법치주의는 괜찮나요? •

부제: 자연, 생명, 약속 뭐 그런 것들로

광주 산수동의 한량은  
여름을 맞이 하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산이 되고 물이 되네  
큰 서양 대서양  
평화의 이상 태평양  
사람의 길 인도양  
책들이 극점으로 북극해  
남성들이 극점으로 남극해  
위대한 호수 오대호  
여름 사람은 여행으로 설레이네  
큰 자연 앞에 왜소한 사람들  
폴 사이먼은 우리는 먼 사이란 의미인가  
세상은 험하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겠다네  
동기들의 아침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네  
법과 건강은 부르조아의 기본  
우리는 카르도조 같은 메디오크러트  
법을 생각하고 헬씨한 사회를 꿈꾸었네  
법으로 숙달된 로렌스  
정치도 국가도 아닌가?  
트라이브는 민족이라는 이름  
우리는 로렌스 트라이브를 그리고  
내가 법학의 스타인가?  
방구나 받아라 까스 선스타인 교수를 찾네  
우리의 역사는 법률가의 비애  
우파 세력은 법원 앞 전두환 탱크  
좌파 세력은 헌법재판소 앞 촛불 군중  
법과 정치는 같등하고  
법과 정치의 같등인가?  
씨앙스 포에 로스쿨을?

파리대학 법학 교수들은 들고 일어나고  
 학문의 세계에서 마저 균열하네  
 펜들턴 법은 권위의 전환점  
 정치와 업관제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펜으로 하자 시험 보자  
 업전들은 펜을 들고 세상은 도네  
 서울 법대는 밥이 되어  
 고시반 정거장처럼 되고  
 김서라 이름대로  
 한국 사람들은 일어 서고  
 우리는 법과대학의 개혁으로  
 국가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새로운 로스쿨로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는 법을 지키자  
 우리는 건강을 지키자  
 메디컬은 크다는데요  
 그래서 의협회장 이름이  
 최대집인지 실소하네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이 메디컬이 같나요?  
 폴 사이먼 이름대로 멀지만  
 다리로 다 연결 된다잖아  
 이영대 동기 이름대로  
 영어를 크게 해  
 서동우 동기 이름대로  
 서양과 동양은 메디컬 친구야  
 우리는 서우림 이름대로  
 수 많은 서양사람들의 숲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서장훈과 이수근 이름처럼  
 긴 서양세계 인생에도  
 우리의 이치와 일을 지키네  
 법은 과학 같지만 민속을 향하고  
 힘[힘]찬 메디컬은 이치의 광기로  
 네이처에 논문을 내고 대쪽 법관이 되네

이광기 이름처럼 이치는 광기가 되고  
이회창 이름처럼 이치가 모이고  
법창 속에는 소수 의견이  
힘찬 메디컬이 과유불급이 되었나?  
하늘이 화합하고  
큰 유학자라는 화천대유 이름에  
유명 법률가들의 이름이  
서라 이치를 민족에게 서성 대법관  
이성의 권력 권성 대법관  
우리 시절 양심 법관들은 모두 어디 갔나?  
법 그거 우리들의 약속인데  
법치주의는 괜찮나요?  
법이 아직 치사한가요?  
크게 그만해 이제는 직업병이 되어  
그거 치사 쉽지 않을 것  
노년의 폐친 법학 교수님은  
그저 나 밖에 믿을 것 없지  
자치통감의 구절들로  
폐친 변호사는 국제계약서  
깨알 같은 약관 속 중재조항으로  
이거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쌘밥 장소가 런던인지 서울인지  
국내에서 집행은 되는지  
뉴욕협약을 들여다 보네

77. • 에게해의 사람들 •

부제 1: 청바지와 초코파이

부제 2: 법관과 전문가

로마법 이래 법은 법관이 안다.

사실의 확정과 법의 적용은 엄격히 분리된다.  
사실심 법관과 법률심 법관의 역할은 분리된다.  
사실의 확정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의 적용에는 직권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법의 존재는 법이 아니고 사실 문제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외국법의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법관이  
이를 찾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법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기에  
모호한 영역이 있다.

소위 전문가 증언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전문가 증언은 연방 증거법  
제 702조에서 정하고 있다.

전문가 증언에 관한 대표적 선례가  
도우벳(Daubert)과  
금호타이어(Kumho tire)사건이다.

도우벳 사건은 전문가는  
도우미 친구라는 뜻인지  
같이 박사 공부를 하여  
세상을 흠치는 친구라는 뜻인지  
이름도 묘하게 도우벳이다.

그러나 오랜 경험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자도  
전문가 증언을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사건의 원고는  
타이어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고  
이름도 묘하게 카마이클(Carmichael)이다.

사실심 법관은 복잡한 모든 것으로 부터  
대걸레(Gatekeeping)역할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 증언의 증언자도  
차를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칼슨(Carlson)의 증언은  
지식 훈련 교육 관련(knowledge-  
training-education-based)

전문성이 아니다.

칼슨의 증언은 기술과 경험 관련  
(skill-experience-based)전문성이다.

법이 아니고 사실의 확정 문제이지만

일반 증언과 다른 묘한 사각지대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1심은 칼슨의 증언이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이를 배척한다.

2심은 칼슨의 증언은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 확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대법원은 칼슨의 증언은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고

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초코렛 파이 이름 처럼 정으로 사네

푸른 청바지 같은 청자 마음 심자의 정

심수봉 이름 처럼

우리는 깊은 짐승 깊은 우물

고릴라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정다운 표인봉

봉은 드라마 길구봉구의 봉구처럼 우리의 살길

우리는 심수봉과 표인봉을 떠 올리네

사랑 밖에 난 몰라 심수봉의 노래 가락은

김씨가 무엇인지 보여 주겠어

내 차는 잘 나간다 철이 들어라 차지철을 향하고  
나는 바르다 박정희를 향하네  
깊은 짐승 깊은 우물  
심수봉은 지난 시절 우리의 비극  
민주화 시대 우리의 비극은 정유정과 고유정  
정유정은 나와 사회  
나는 사회 속 정든 존재 너는 정이 뚝 떨어진다  
잔혹한 살인으로  
고유정은 나와 가정  
무슨 제주도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나?  
나와 애들은 어찌라고  
아 차라리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 그리운 아침  
과유불급 정이 나무 과했나?  
북한 장군 무정처럼 되어 그냥 짝?  
인간에 대한 회의와 환멸 속에  
우리는 법관이 되어 전문가 증언이라도  
이수정 교수는 정유정과 고유정이 다르다네  
정자 돌림의 아침은 에게해의 저주인가?  
에게 해 떴다?  
에스 자 시작 학위로 게 걸음 횡보 그만해?  
우리의 정은 광주의 금호타이어  
굴러가자 앞으로 앞으로  
정자 돌림의 아침은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 김 기 영 시인 이력

###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연구논문 및 저서

### ○ 저서

-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 ○ 연구논문

-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관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그외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